2022.12.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 동향 I 제34호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경제 현안 I 경기분석 기법을 이용한 최근 국내 경기상황 점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2년 12월호 통권 제34호

Contents

Ⅰ. 지출
1. 소비 6
2. 투자 8
3. 대외거래 13
4. 소비자물가 16

Ⅱ.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1
2. 고용 32
3. 인구 38

Ⅲ. 금융·자산
1. 금융시장 42
2. 에너지 및 원자재 46
3. 부동산 57

Ⅳ.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60
2. 중국 63
3. 유로지역 65
4. 일본 67

Ⅴ. 경제 현안
1. 경기분석 기법을 이용한 최근 국내 경기상황 점검 6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경제동향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과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내수는 10월 중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

-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
- **설비투자는 보합이나 건설투자는 증가로 전환**

무역수지는 11월 기준 8개월 연속 적자이며 적자폭이 점차 확대

- **11월 수출은 2개월 연속 역성장**
  - 중국, 아세안,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
- **11월 무역수지는 70.1억달러(2022년 누적 426.1억달러) 적자**
  - 10월 경상수지는 8.8억달러 흑자이나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축소

소비자물가는 1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는 지속되나 상승폭이 다소 감소

-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각각 6.1%와 4.1% 상승**

10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5% 감소하여 4개월 연속 감소

-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4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로도 감소**
  - 가전(-15.9%), 컴퓨터 · 주변장치(-13.5%), 섬유(-8.3%), 자동차(-7.3%) 등에서 감소하였고, 조선(9.2%), 무선통신기기(1.9%), 반도체(0.9%)는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2개월 연속 감소**

고용은 모든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나 취업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

- **취업자 수는 11월에 62.6만명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2.3%의 낮은 수준을 유지**
- **인구는 감소추세가 지속되며 1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0.39% 감소**

금융시장은 시장금리와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

- **11월말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월대비 0.5%p 하락하여 8월말 수준인 3.69%**
- **11월말 원/달러 환율은 1,322원으로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상승세가 진정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0 연간	2021				2022				
		연간	2Q	3Q	4Q	2Q	3Q	9월	10월	11월
전산업생산	-1.1	4.9	7.3 (0.6)	3.9 (0.9)	5.7 (1.5)	4.5 (0.9)	4.0 (0.4)	3.2 (-0.4)	2.8 (-1.5)	
광공업생산	-0.3	7.4	13.1 (-0.6)	5.8 (1.0)	6.4 (1.1)	4.1 (-1.6)	1.3 (-1.5)	0.7 (-1.9)	-1.1 (-3.5)	
서비스업생산	-2.0	4.4	5.7 (1.7)	3.9 (1.1)	5.5 (1.5)	5.5 (2.8)	6.0 (1.5)	5.9 (-0.2)	5.0 (-0.8)	
소매판매액	-0.2	5.9	5.0 (2.2)	5.6 (0.8)	6.4 (1.)	-0.2 (-1.1)	-0.2 (1.2)	-0.8 (-1.9)	-0.7 -(0.2)	
설비투자지수	5.9	9.6	13.2 (0.7)	6.2 (-0.8)	6.2 (-02.)	-2.4 (-1.2)	7.8 (10.0	12.6 (-2.2)	16.8 (0.0)	
건설기성액	-2.1	-6.7	-7.2 (-1.9)	-8.1 (-1.1)	-2.9 (4.1)	2.1 (1.4)	4.0 (0.5)	4.5 (0.6)	8.3 (3.8)	
수출(통관)	-5.5	25.7	42.0	26.5	24.5	13.0	5.8	2.3	-5.7	-14.0
수입(통관)	-7.1	31.5	37.7	37.5	39.4	23.0	22.6	18.6	9.9	2.7
경상수지 (억달러)	759	883	194.2	256.5	208.9	93.9	-6.7	15.8	8.8	
실업률	4.0	3.7	3.9	2.8	2.9	3.0	2.5	2.4	2.4	2.3
취업자수 (천명)	-218	369	618	577	660	880	780	707	677	626
소비자물가	0.5	2.5	2.5	2.5	3.5	5.9	5.6	5.6	5.7	5.0
원/달러환율	1,080	1,144	1,130	1,185	1,186	1,293	1,435	1,435	1,419	1,332
국고채금리 (3년)	0.99	1.39	1.45	1.59	1.80	3.55	4.19	4.19	4.19	3.69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말(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https://datalink.nabo.go.kr/2950922X20227/1

I

지 출

10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준내구재 판매가 줄어 감소

■ **외식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으나, 기저효과와 날씨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수요가 부진**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8월)4.4 → (9월)-1.9 → (10월)-0.2
- 내 구 재(전월대비, %): ('22.8월)4.4 → (9월)5.4 → (10월)-4.3
- 준내구재(전월대비, %): ('22.8월)2.4 → (9월)-3.6 → (10월)-2.5
- 비내구재(전월대비, %): ('22.8월)5.2 → (9월)-5.0 → (10월)3.1

10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하락하였으나 기계류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보합

- 설비투자(전월대비, %): ('22.8월)10.7 → (9월)-2.2 → (10월)0.0

10월 건설투자(건설기성)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늘며 증가 전환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8월)3.7 → (9월)0.6 → (10월)3.8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2.8월)0.7 → (9월)2.6 → (10월)3.9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2.8월)14.0 → (9월)-5.1 → (10월)3.3

수출이 2개월 연속 역성장하면서 11월「무역수지」적자폭 확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9월)2.3 → (10월)-5.7 → (11월)-14.0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9월)18.2 → (10월)9.9 → (11월)2.7
- 무역수지(억달러): ('22.9월)-38.2 → (10월)-67.0 → (11월)-70.1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5.6 → (10월)5.7 → (11월)5.0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7.2 → (10월)7.3 → (11월)6.1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4.2 → (10월)4.2 → (11월)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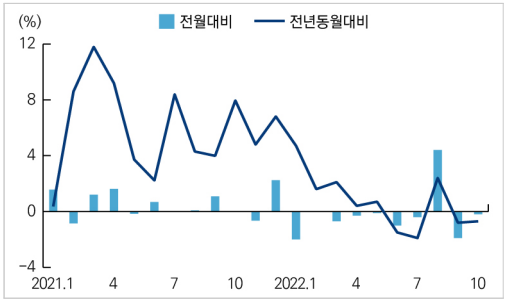
1. 소비

10월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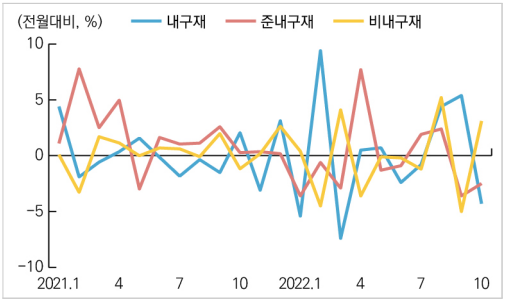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8월)4.4 → (9월)-1.9 → (10월)-0.2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2.8월)4.3 → (9월)-3.5 → (10월)0.9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 내구연한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판매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4.3% 감소**

- 전월 크게 증가했던 승용차 판매의 기저효과로 감소
- 내구재(전월대비, %): ('22.8월)4.4 → (9월)5.4 → (10월)-4.3
- 승용차(전월대비, %): ('22.8월)4.9 → (9월)9.6 → (10월)-7.8

■ **준내구재는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2.5% 감소**

- 따뜻한 날씨와 추운 날씨가 반복되어 간절기 의류 수요 감소
- 준내구재(전월대비, %): ('22.8월)2.4 → (9월)-3.6 → (10월)-2.5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화장품,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3.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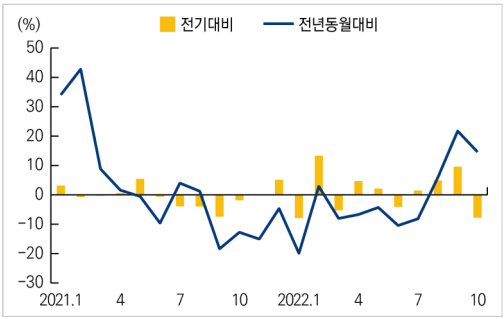
- 외식물가가 높아지며 가정식을 위한 음식료품 구매가 증가
- 비내구재(전월대비, %): ('22.8월)5.2 → (9월)-5.0 → (10월)3.1

■ **소매업태별로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0%), 전문소매점(-0.8%)[1], 백화점(-2.4%), 무점포소매(-0.3%)[2]에서 전월대비 판매가 감소**

- 면세점(11.0%), 슈퍼마켓 및 잡화점(3.9%), 대형마트(2.1%), 편의점(0.3%)에서는 전월대비 판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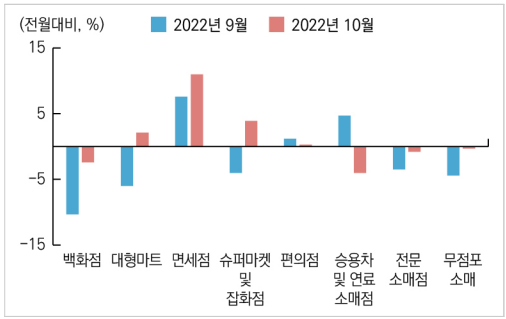
1)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2) 무점포소매점은 매장없이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의미

[그림 3] 승용차 판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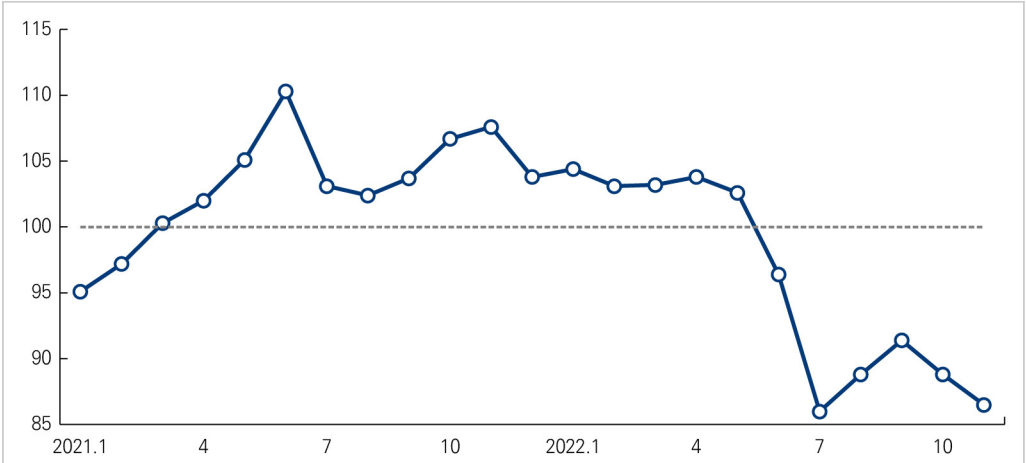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우려가 높아지며 2.3p가 낮아진 86.5를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현재생활형편(83)을 제외한 생활형편전망(82, -2p), 가계수입전망(93, -1p), 소비지출전망(107, -3), 현재경기판단(46, -1p), 향후경기전망(54, -2p) 지수가 악화
- 소비자심리지수: ('22.8월)88.8 → (9월)91.4 → (10월)88.8 → (11월)86.5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1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 투자

가. 설비투자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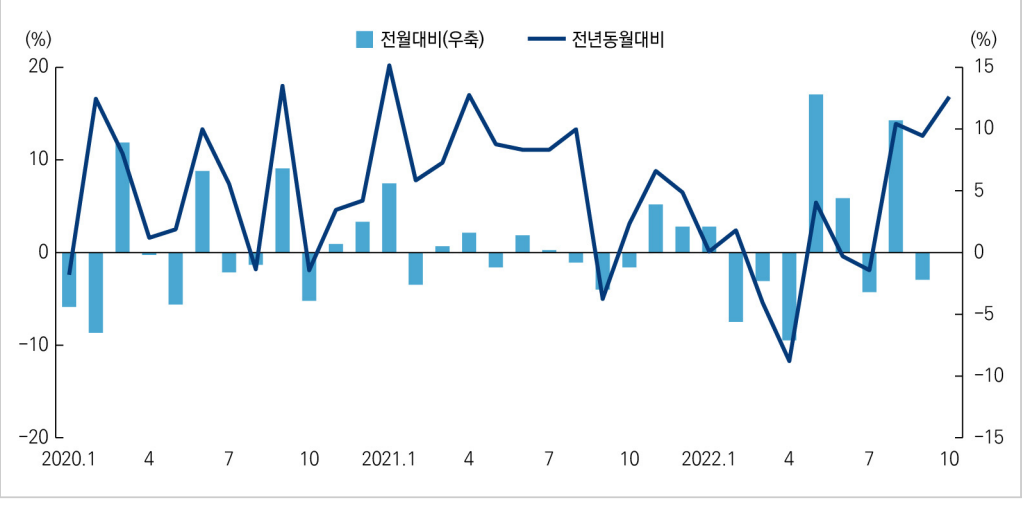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5.0%)에서 하락하였으나 기계류(1.9%)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보합 기록**

- 설비투자(전월대비, %): ('22.8월)10.7 → (9월)-2.2 → (10월)0.0
- 기계류(전월대비, %): ('22.8월)10.4 → (9월)-6.4 → (10월)1.9
- 운송장비(전월대비, %): ('22.8월)12.0 → (9월)11.3 → (10월)-5.0

■ **전년동월대비로도 기계류(13.4%)와 운송장비(27.4%)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6.8% 증가**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2.8월)13.9 → (9월)12.6 → (10월)16.8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2.8월)16.0 → (9월)9.0 → (10월)13.4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2.8월)7.9 → (9월)24.7 → (10월)27.4

[그림 6]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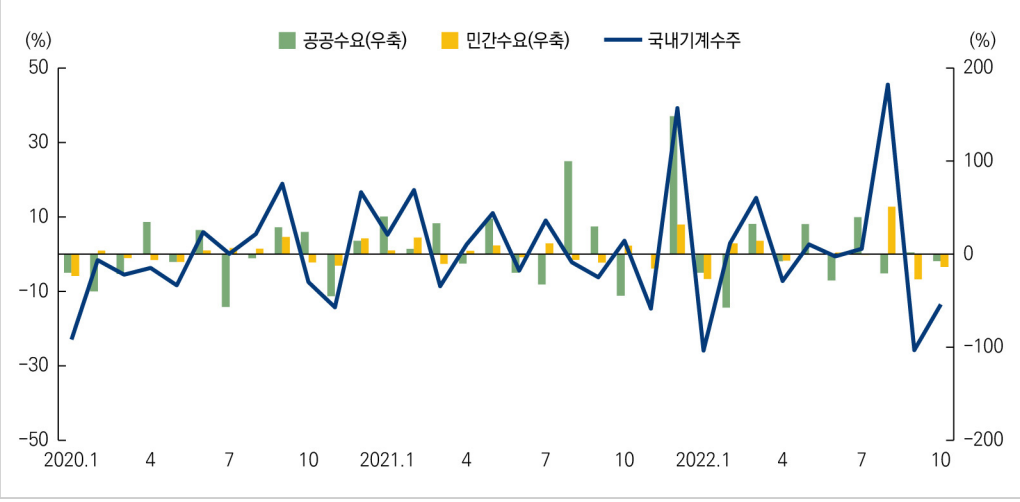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0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감소, 「기계류 내수출하」, 「기계류 수입액」 증가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7.4%)과 민간부문(-13.8%)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13.5% 감소**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2.8월)45.5 → (9월)-25.8 → (10월)-13.5
- 공공부문(전월대비, %): ('22.8월)-20.6 → (9월)1.9 → (10월)-7.4
- 민간부문(전월대비, %): ('22.8월)50.8 → (9월)-27.0 → (10월)-13.8

[그림 7]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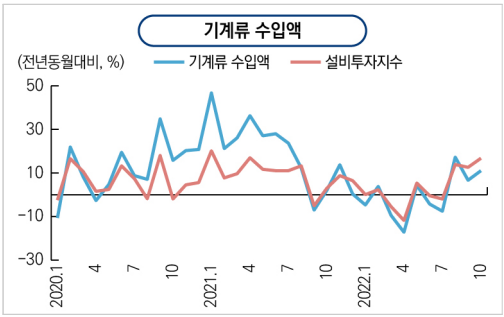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2.0% 증가**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2.8월)5.7 → (9월)1.0 → (10월)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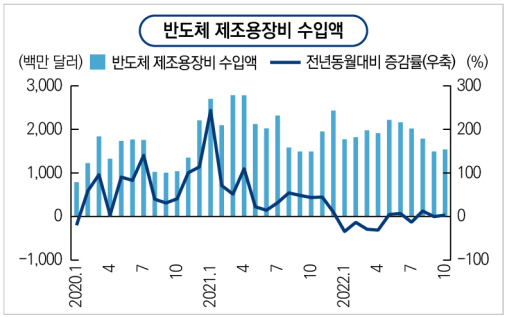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3.3%), 자동차 부품(12.6%)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2.8월)17.3 → (9월)6.7 → (10월)11.1

[그림 8]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10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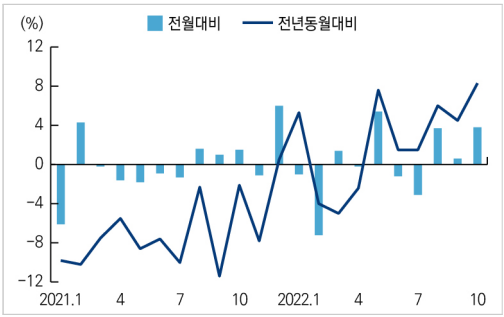
■ **건설기성은 건축(3.9%)과 토목(3.3%)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3.8% 증가**

- 건축은 대규모 상업시설 준공의 영향으로 증가하였고, 토목은 디스플레이 관련 플랜트 공사로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8월)3.7 → (9월)0.6 → (10월)3.8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2.8월)0.7 → (9월)2.6 → (10월)3.9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2.8월)14.0 → (9월)-5.1 → (10월)3.3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축(11.7%)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토목(-2.1%) 공사실적이 감소하여 8.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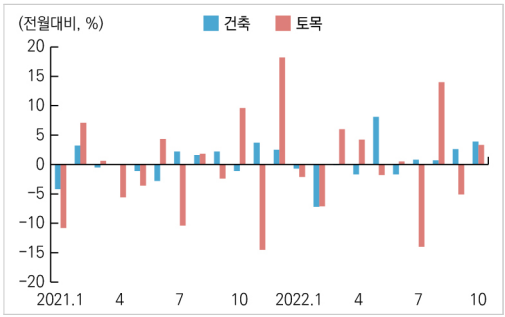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2.8월)6.0 → (9월)4.5 → (10월)8.3

[그림 9]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0]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10월 「건설기성(경상)」은 전년동월대비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 건축(11.4%)과 비주거용 건축(33.0%)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8.7% 상승**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22.8월)14.1 → (9월)13.0 → (10월)18.7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8월)12.0 → (9월)11.7 → (10월)11.4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8월)17.7 → (9월)15.1 → (10월)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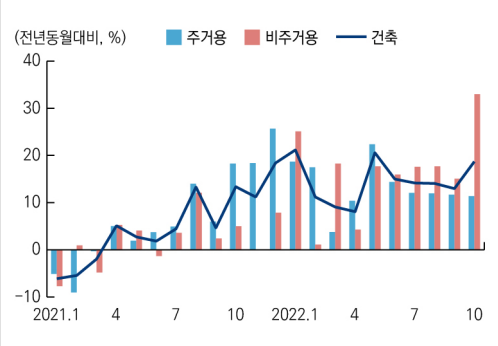
■ **토목부문(경상)은 플랜트(23.6%)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2.8월)15.9 → (9월)10.7 → (10월)5.3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2.8월)-2.4 → (9월)-7.1 → (10월)9.1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22.8월)10.6 → (9월)0.2 → (10월)-50.6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22.8월)40.1 → (9월)39.9 → (10월)23.6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을 살펴보면 공공기관(8.2%)과 민간기관(18.0%)의 공사실적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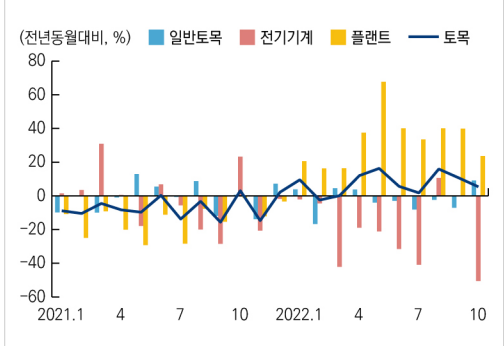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8월)5.1 → (9월)-2.2 → (10월)8.2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8월)17.3 → (9월)15.9 → (10월)18.0

[그림 11]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2]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10월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사무실 및 점포, 철도·궤도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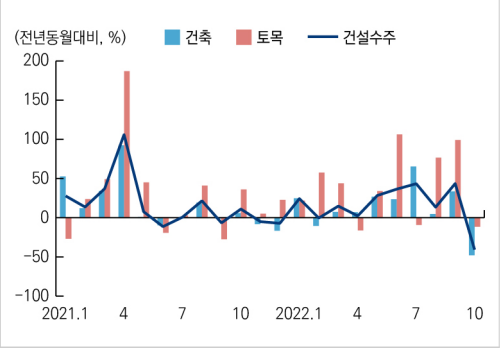
■ 건설수주(경상)는 2월(-0.3%) 이후 8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40.3% 감소 전환

- 건축 수주는 주택(-44.2%), 사무실·점포(-68.8%) 등의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47.8% 감소
- 토목 수주는 철도 및 궤도(-99.3%) 등의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
-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2.8월)13.5 → (9월)43.8 → (10월)-40.5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주가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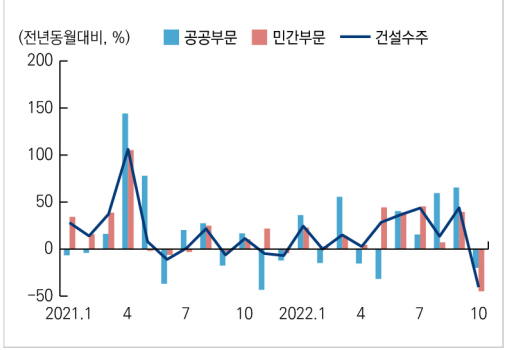
- 공공부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20.0%, 민간부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44.9%가 감소
- 업종별로 제조업(-30.5%)보다 비제조업(-49.0%)의 수주가 크게 감소

[그림 13]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4]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이 2개월 연속 역성장하면서 11월「무역수지」적자폭 확대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0% 감소한 519.1억달러로 전월(-5.7%)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9월)2.3 → (10월)-5.7 → (11월)-14.0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2.9월)26.6 → (10월)24.4 → (11월)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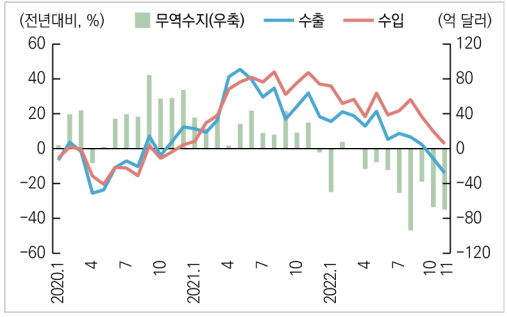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한 589.3억달러로 전월(9.9%)에 비해 증가세 둔화**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9월)18.2 → (10월)9.9 → (11월)2.7

■ **무역수지는 70.1억달러 적자로 전월(-67.0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8개월 연속으로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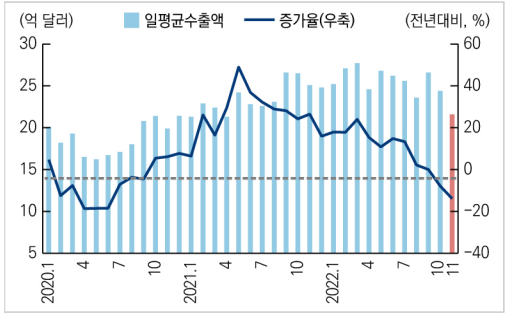
- 무역수지(억달러): ('22.9월)-38.2 → (10월)-67.0 → (11월)-70.1

[그림 15]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 동향」

[그림 16] 일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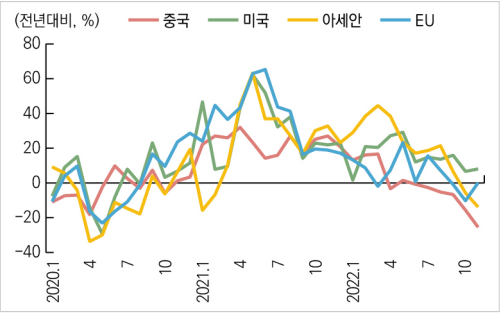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미국, CIS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가운데, 중국, 일본 등에서는 감소 확대

■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 아세안,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2.9월)-6.7 → (10월)-15.7 → (11월)-25.5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2.9월)15.9 → (10월)6.6 → (11월)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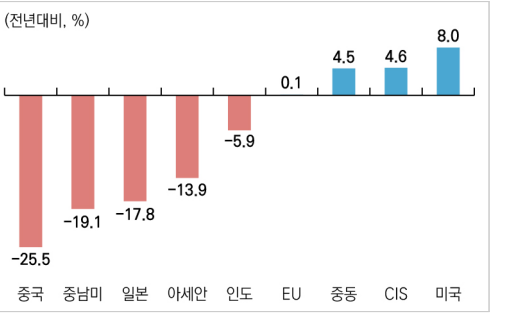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2.9월)6.6 → (10월)-5.8 → (11월)-13.9
- 대EU 수출(전년동월대비, %): ('22.9월)-0.9 → (10월)-10.3 → (11월)0.1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2.9월)1.8 → (10월)-13.1 → (11월)-17.8
-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2.9월)-0.2 → (10월)-27.2 → (11월)-19.1

[그림 17]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8] 9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나. 경상수지

10월 「경상수지」는 8.8억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축소

■ **경상수지는 8.8억달러로 전년동월 80.1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

- 경상수지(억달러): ('22.8월)-30.5 → (9월)15.8 → (10월)8.8

■ **상품수지는 전년동월 61.0억달러에서 -14.8억달러로 적자전환**

- 상품수지(억달러): ('22.8월)-44.5 → (9월)4.7 → (10월)-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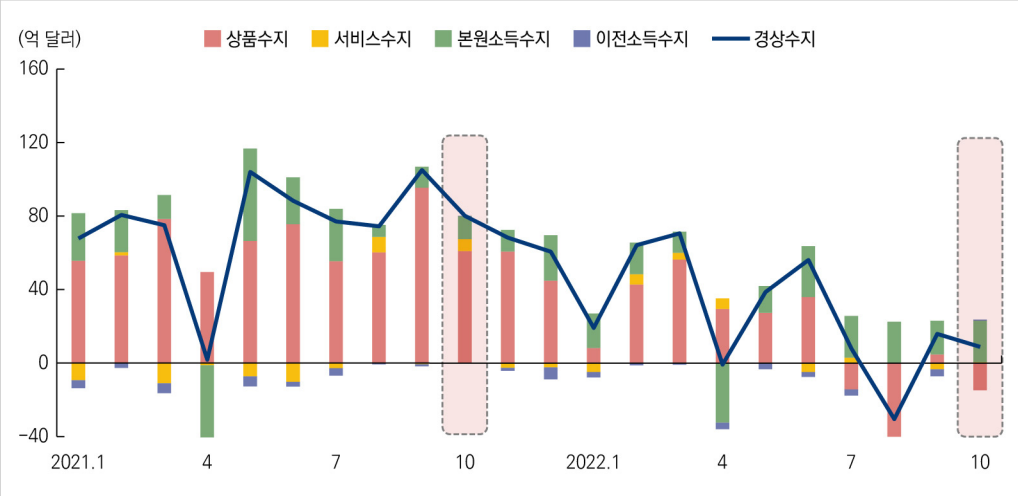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폭 축소('21.10월 23.1억달러 → '22.10월 13.8억달러) 등으로 전년동월 6.4억달러에서 0.5억달러로 흑자규모 축소**

- 서비스수지(억달러): ('22.8월)-7.7 → (9월)-3.4 → (10월)0.5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12.5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 확대**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2.8월)22.4 → (9월)18.4 → (10월)22.6

[그림 19]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4.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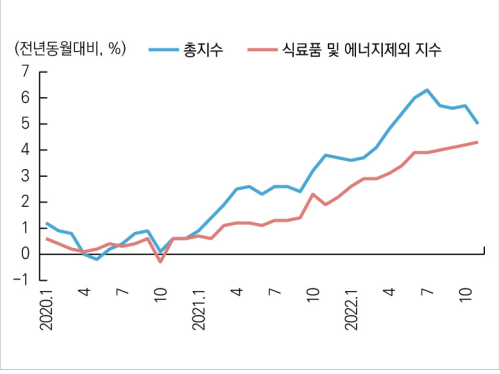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6.1%), 서비스(4.1%)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5.0%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5.6 → (10월)5.7 → (11월)5.0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4.1 → (10월)4.2 → (11월)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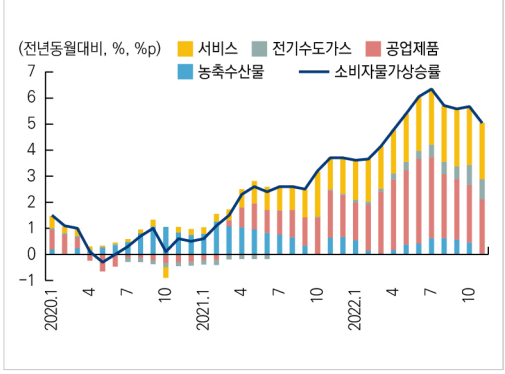
※ 근원물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그림 2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1]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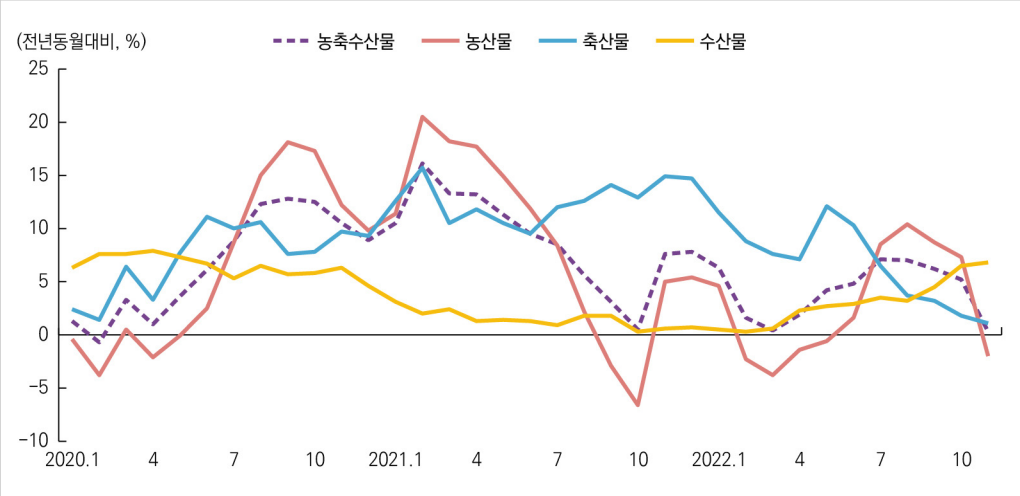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2.0%), 축산물(1.1%) 등 주요 품목에서의 상승률이 둔화되며 0.3%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6.2 → (10월)5.2 → (11월)0.3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8.7 → (10월)7.3 → (11월)-2.0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3.2 → (10월)1.8 → (11월)1.1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4.5 → (10월)6.5 → (11월)6.8

[그림 22]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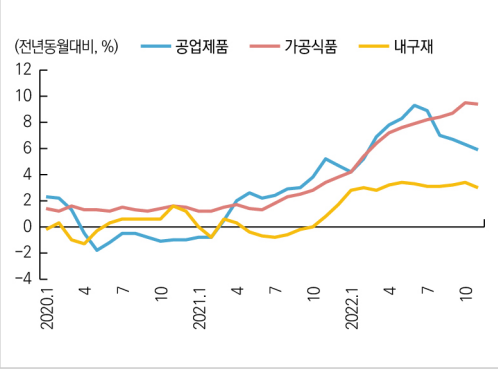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공업제품 물가는 가공식품(9.4%)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로 석유류(5.6%)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며 5.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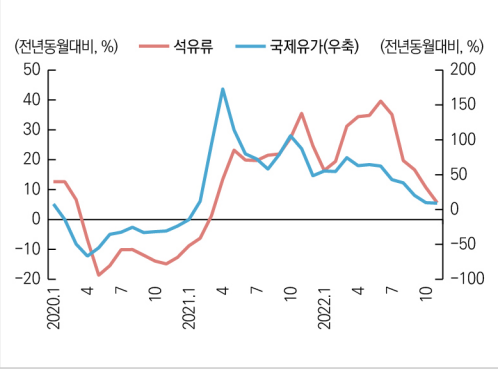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6.7 → (10월)6.3 → (11월)5.9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16.6 → (10월)10.7 → (11월)5.6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8.7 → (10월)9.5 → (11월)9.4
- 국제유가 상승률(3개유종평균, 전년동월대비, %): ('22.9월)20.2 → (10월)9.6 → (11월)8.8

[그림 23]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4]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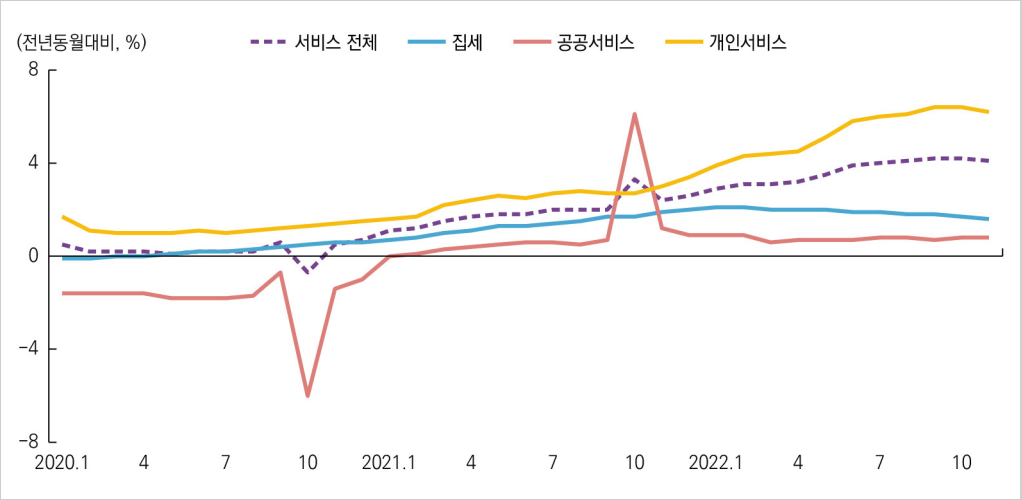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Bloomberg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4.1%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4.2 → (10월)4.2 → (11월)4.1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1.8 → (10월)1.7 → (11월)1.6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0.7 → (10월)0.8 → (11월)0.8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9월)6.4 → (10월)6.4 → (11월)6.2

[그림 25]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월별 GDP를 통해 살펴본 최근 경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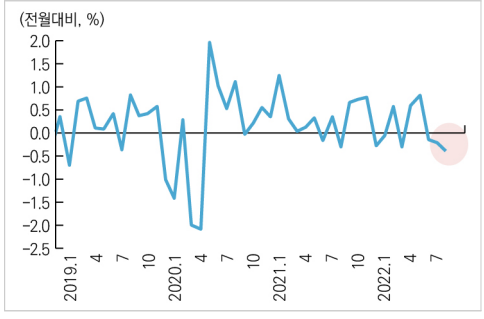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월별 GDP를 시범적으로 추산하여 경기상황 진단과 성장경로 점검의 보조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 GDP는 단일 경제지표로 경제활동 수준을 가장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분기별로만 편제되는 단점
- 월별 GDP를 보다 정확성 높게 추정할 수 있다면 분기 GDP의 장점에 더하여 속보성도 확보가능하여 경기상황 진단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
- 다만 현재까지는 추계 상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아직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음
  - 캐나다, 영국은 기초 월별 자료로부터 직접추계하는 방식으로 시험 편제
  - 핀란드는 시간분해(Temporal Disaggreg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간접추계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핀란드의 간접추계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시산에 활용

■ **추정된 월별 GDP로 계산한 성장률은 2022년 7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월별 GDP로 측정한 3/4분기 경기하강 속도는 월평균 -0.3%
- 4/4분기에도 비슷한 하강속도가 유지된다면 2022년 연간 성장률은 2.5%정도(월별 GDP를 이용하여 계산)가 될 것으로 추산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연간 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한 바 있음

[월별 GDP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월별 GDP와 분기 GDP 수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간분해 기법에서는 기발표된 분기 GDP를 준거점으로 삼아 월별 GDP를 추정**

- 먼저 분기 GDP와 참조지표* 간의 통계적 관계를 추정하고, 다음으로 추정된 관계식과 참조지표의 월간 값을 결합하여 월별 GDP를 추정

  ※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취업자 수, 소매판매액 등

- 이 과정에서 각 분기의 월별 GDP 합계가 분기 GDP와 항상 같아지도록 제약하는 방식으로 추계의 일관성을 확보

Ⅱ

생산·고용·인구

10월 중 「생산」은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전월대비로는 1.5%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8월)4.8 → (9월)3.2 → (10월)2.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8월)-0.1 → (9월)-0.4 → (10월)-1.5

■ **「제조업 생산」은 가전, 철강, 화학, 섬유, 반도체 등이 줄어 1.1%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8월)1.4 → (9월)0.7 → (10월)-1.1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이 늘어 5.0%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8월)7.4 → (9월)5.9 → (10월)5.0

11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증가

■ **석유, 자동차의 수출만 증가하고 반도체, 화학,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이 글로벌 수요둔화의 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6.2% 감소**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8월)5.1 → (9월)-0.2 → (10월)-9.1 → (11월)-16.2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8월)-7.5 → (9월)0.4 → (10월)-8.9 → (11월)0.4

■ **품목별로는 자동차(21.7%), 석유(26.0%)는 증가하였으나, 반도체(-29.8%), 화학(-26.5%) 등은 감소**

10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수준을 유지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8월)0.5 → (9월)0.1 → (10월)0.0**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8월)-0.1 → (9월)-0.1 → (10월)-0.1**

11월 고용은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나, 「취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 둔화

■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2.6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폭은 지속 축소되고 있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70.7 → (10월)67.7 → (11월)62.6
- 취업자 수 증감(계절조정, 전월대비, 만명): ('22.9월)-2.2 → (10월)-0.5 → (11월)-2.8

■ **실업률은 2.3%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은 62.7%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

- 고용률(%): ('22.9월)62.7 → (10월)62.7 → (11월)62.7
- 실업률(%): ('22.9월)2.4 → (10월)2.4 → (11월)2.3

11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만 2천명(-0.39%) 감소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35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전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던 기저효과 등으로 「혼인건수」와 「조혼인률」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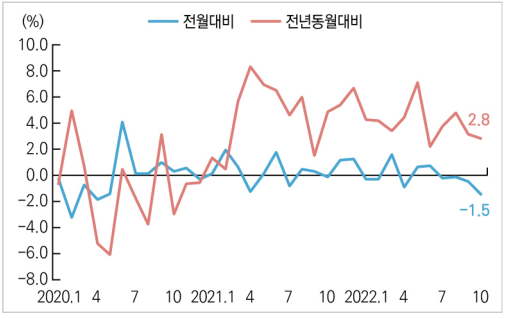
10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늘어 2.8% 증가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월대비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부문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 1.5% 감소하며 감소 폭 확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8월)4.8 → (9월)3.2 → (10월)2.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8월)-0.1 → (9월)-0.4 → (10월)-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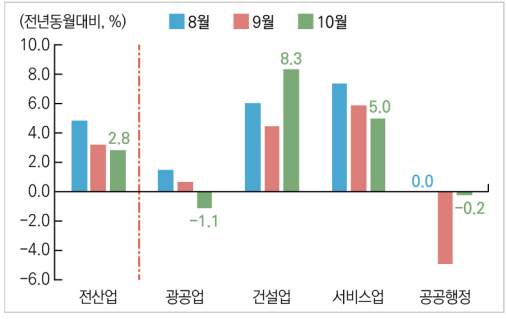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광공업(-1.1%), 공공행정(-0.2%)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8.3%), 서비스업(5.0%)은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3.8%)만 증가하였고 광공업(-3.5%), 서비스업(-0.8%), 공공행정(-2.3%)은 감소**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10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24.6%), 자동차(22.8%), 컴퓨터 · 주변장치(17.7%), 조선(15.8%), 일반기계(5.7%), 석유(2.0%)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가전(-34.0%), 철강(-24.6%), 화학(-13.2%), 섬유(-6.8%), 반도체(-2.2%) 등은 줄어 1.1%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8월)1.4 → (9월)0.7 → (10월)-1.1

■ **전월대비로는 조선(9.2%), 무선통신기기(1.9%), 반도체(0.9%)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가전(-15.9%), 컴퓨터 · 주변장치(-13.5%), 섬유(-8.3%), 일반기계(-7.9%), 자동차(-7.3%), 석유(-1.5%), 철강(-0.7%), 화학(-0.5%) 등의 생산이 줄어 3.6% 감소**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2.8월)-1.3 → (9월)-1.8 → (10월)-3.6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			2022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10.6	111.8	115.5	112.2	112.6	114.2	-3.6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3	-1.1	5.2	1.4	0.7	-1.1	
반도체	36.9	30.5	37.8	-0.1	-3.6	-2.2	0.9
자동차	6.8	-24.7	-14.2	22.5	31.4	22.8	-7.3
화학	10.0	3.7	2.3	-13.0	-14.2	-13.2	-0.5
일반기계	12.3	2.0	8.1	10.3	11.8	5.7	-7.9
철강	14.6	2.5	2.3	-8.8	-27.5	-24.6	-0.7
조선	-22.6	-24.7	-14.1	12.7	6.6	15.8	9.2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10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부동산(-7.7%)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점(15.9%), 금융·보험(7.9%), 운수·창고(6.9%), 도소매(3.3%) 등이 늘어 5.0%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8월)7.4 → (9월)5.9 → (10월)5.0

■ **전월대비로는 보건·사회복지(0.3%), 교육(0.2%) 등은 늘었으나, 운수·창고(-1.5%), 숙박·음식점(-1.4%), 금융·보험(-1.4%), 도소매(-0.3%) 등이 줄어 0.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2.8월)1.8 → (9월)-0.2 → (10월)-0.8

[표 2]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1			2022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8.6	110.5	111.8	116.6	117.0	117.4	-0.8
서비스업	4.3	3.3	5.1	7.4	5.9	5.0	
도매 및 소매	5.3	0.3	4.3	6.5	2.9	3.3	-0.3
숙박 및 음식점	-5.3	11.3	7.4	31.7	21.3	15.9	-1.4
금융 및 보험	6.3	4.6	7.0	5.4	8.3	7.9	-1.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11월 중 주요 11대 산업[3]: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석유(26.0%), 자동차(21.7%)의 수출만 증가하고 다른 산업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16.2% 감소**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8월)5.1 → (9월)-0.2 → (10월)-9.1 → (11월)-16.2
- 반도체 수출이 8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화학,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도 글로벌 수요둔화의 영향으로 감소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8.4%), 화학(-4.8%), 조선(-25.4%)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철강(12.0%), 석유(11.0%), 일반기계(10.6%), 자동차(7.4%)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0.4%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8월)-7.5 → (9월)0.4 → (10월)-8.9 → (11월)0.4

[표 3]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				2022					
	8월	9월	10월	11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11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39.8	21.1	29.4	39.7	5.1	-0.2	-9.1	-8.9	-16.2	0.4
반도체	42.6	28.2	28.8	40.0	-7.8	-5.7	-17.4	-19.7	-29.8	-8.4
자동차	18.6	-5.8	-3.6	1.5	28.6	25.8	20.4	-0.7	21.7	7.4
화학	81.6	52.3	69.2	62.8	-11.8	-15.2	-25.5	-8.2	-26.5	-4.8
일반기계	23.4	-1.9	4.1	3.8	-5.6	-1.9	-3.4	-2.1	-1.7	10.6
철강	53.4	41.6	48.4	45.7	2.8	-21.2	-20.7	-0.7	-10.6	12.0
조선	38.8	-40.4	6.5	237.5	-25.8	15.0	-2.7	26.1	-68.2	-25.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는 전년동월의 수출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소비자용 IT기기(중저가 스마트폰 등) 등 전방산업 수요와 서버 수요도 둔화되는 가운데, D램·낸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복합작용하며 전년동월대비 29.8% 감소**

- D램 고정가(달러): ('22.5~6월)3.35 → (7월)2.88 → (8~9월)2.85 → (10월)2.21 → (11월)2.21
- 낸드 고정가(달러): ('22.6월)4.67 → (7월)4.49 → (8월)4.42 → (9월)4.30 → (10~11월)4.14

3)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개선과 고단가 차종(SUV·친환경차 등)의 수출확대로 대미·중동 수출이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수출증가 및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하며 전년동월대비 21.7% 증가**

- 자동차 수출액 증감(억 달러): ('21.11월)59.6 → ('22.11월)72.6
- 자동차 수출액 증감률(%): ('21.11월)1.5 → ('22.11월)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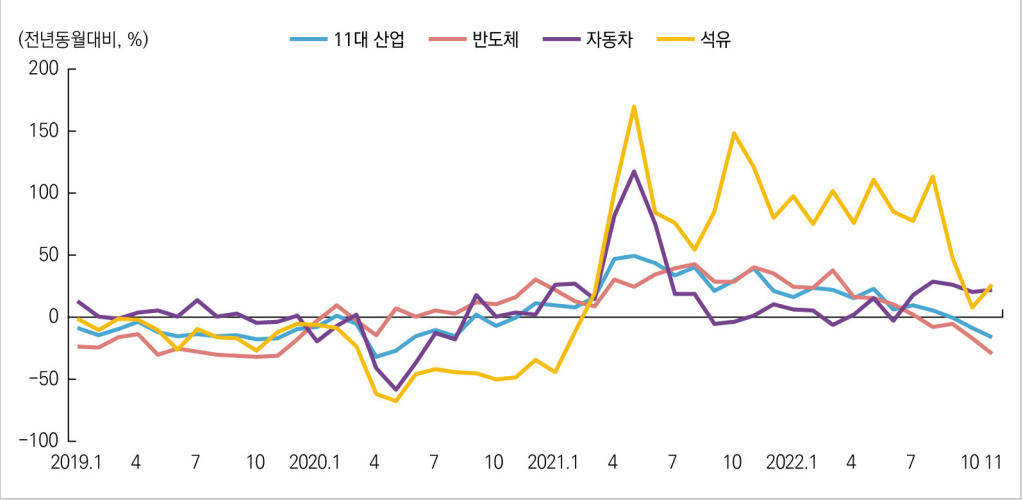
■ **석유는 배럴 당 85달러 이상인 고유가 상황 속에서 10월까지 이어지던 정유사들의 정기보수 작업이 종료되며 가동률이 상승한 가운데, 동절기 진입과 유럽시장의 재고 비축수요 등에 따른 중간유분(등유·경유·항공유)[4]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2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26.0%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21.11월)80.30 → ('22.11월)86.26 (7.4% 상승)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21.11월)93.1 → ('22.11월e)124.0 (33.2% 상승)

■ **화학은 달러화 강세와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단가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황 악화에 따른 국내설비 가동률 조정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 및 자급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6.5% 감소**

- 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1.11월)1,471 → ('22.11월e)1,334 (9.3% 하락)
- 화학 수출액(억 달러): ('21.11월)48.3 → ('22.11월)35.5
- 화학 수출액 증감률(%): ('21.11월)62.8 → ('22.11월)-26.5

[그림 3]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4) 원유에서 정제된 각 제품 중 가솔린, 나프타를 경질유분, B중유, C중유를 중질유분, 등유, 경유, A중유를 중간유분이라고 부르고, 연료용 중유로서 점도와 유황분이 낮은 것으로부터 A중유·B중유·C중유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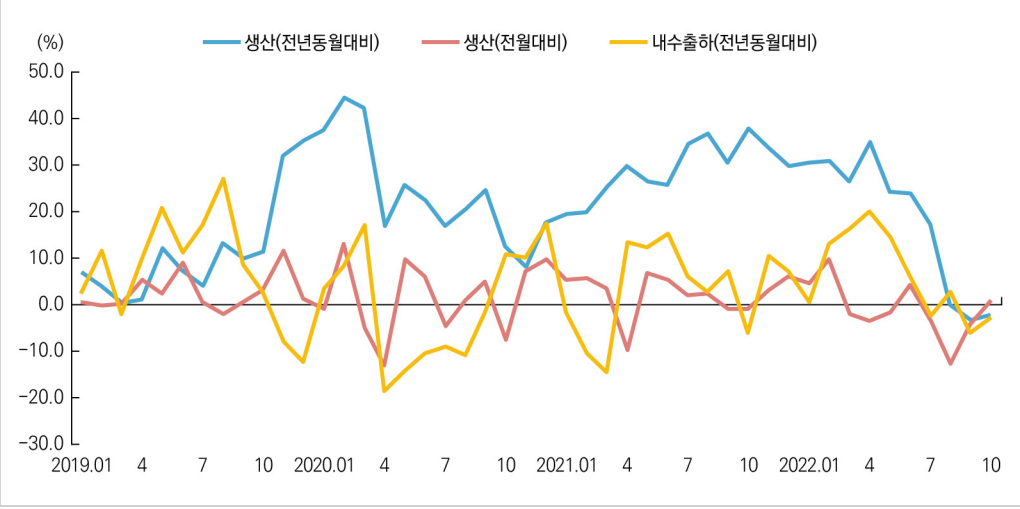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전월대비는 소폭 증가로 전환

■ **10월 중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2.2%)하였으나, 전월대비는 0.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0.1 → (9월)-3.6 → (10월)-2.2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12.8 → (9월)-4.5 → (10월)0.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2.7 → (9월)-6.1 → (10월)-2.9

[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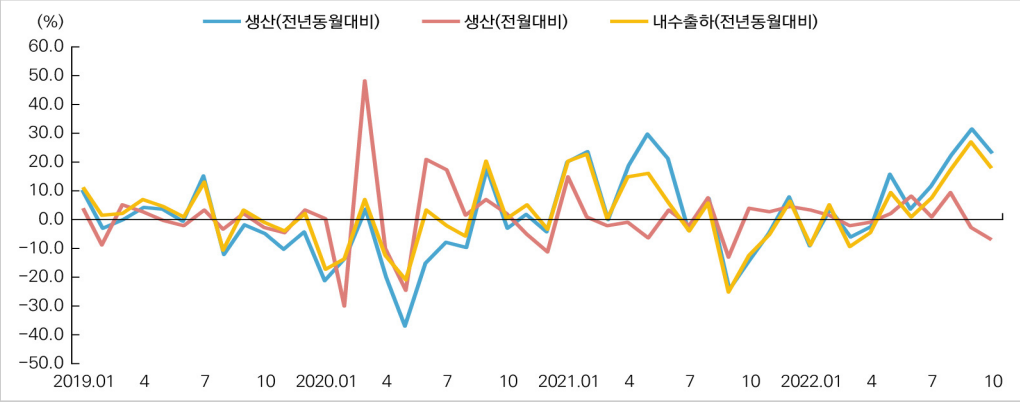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동차: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 감소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8% 크게 증가, 전월대비로는 7.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22.5 → (9월)31.4 → (10월)22.8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8.9 → (9월)-3.2 → (10월)-7.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17.1 → (9월)26.7 → (10월)17.5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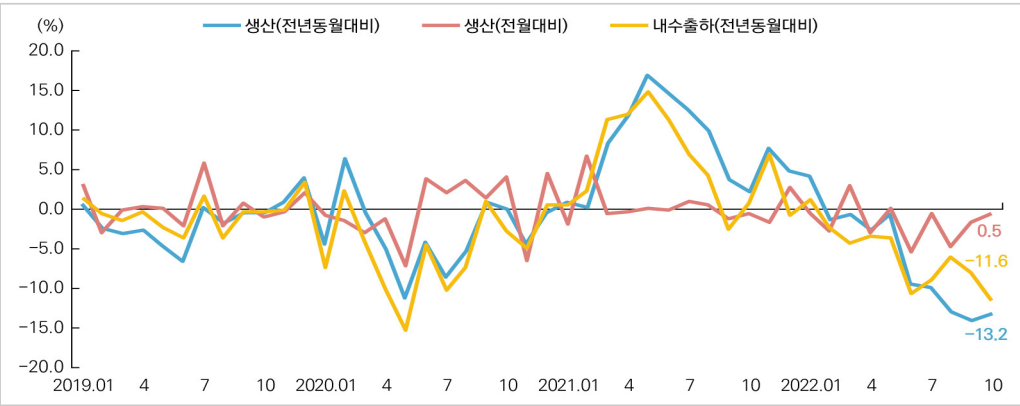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화학: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감소

■ **10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10.0%)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18.4%)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2%, 전월대비로는 0.5% 감소**

- 기초화학물질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의 경우 전방산업의 부진과 SK지오센트릭 사고에 따른 생산 차질,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코로나봉쇄 지속에 따른 화장품 소비 둔화 등에 기인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13.0 → (9월)-14.2 → (10월)-13.2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4.7 → (9월)-1.7 → (10월)-0.5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8월)-6.0 → (9월)-8.1 → (10월)-11.6

[그림 6]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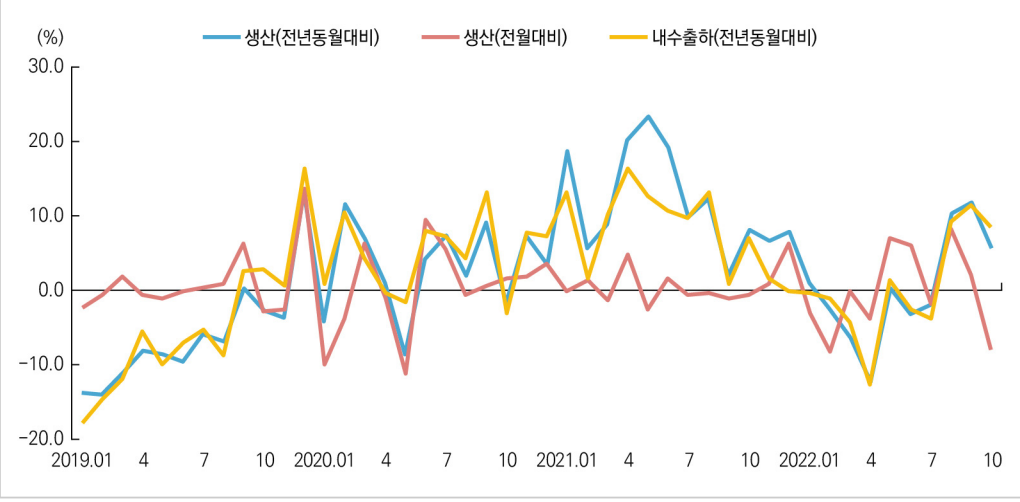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일반기계: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전월대비는 감소 전환

■ **10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5.7%)하였으나, 전월대비는 7.9%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10.3 → (9월)11.8 → (10월)5.7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8.3 → (9월)2.1 → (10월)-7.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9.3 → (9월)11.5 → (10월)8.4

[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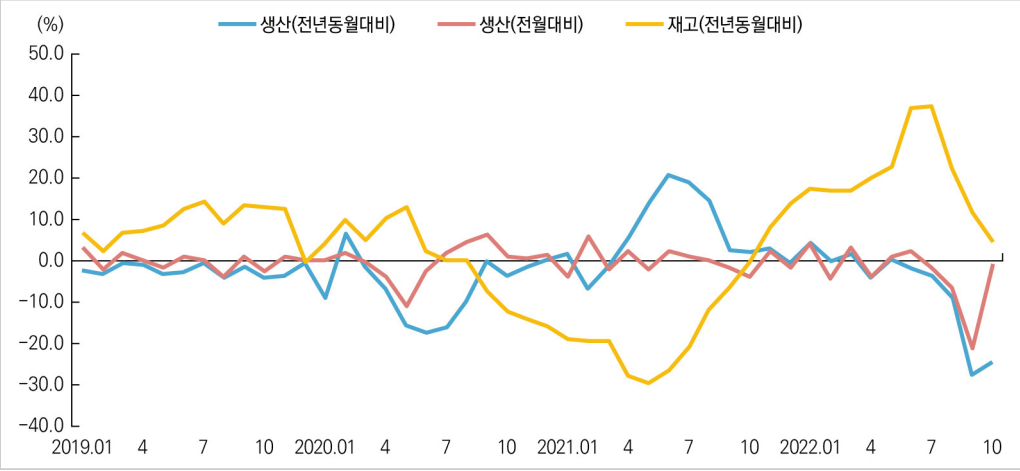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철강: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감소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4.6%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월대비는 0.7% 소폭 감소에 그침**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8.8 → (9월)-27.5 → (10월)-24.6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6.3 → (9월)-21.3 → (10월)-0.7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22.5 → (9월)11.8 → (10월)4.7

[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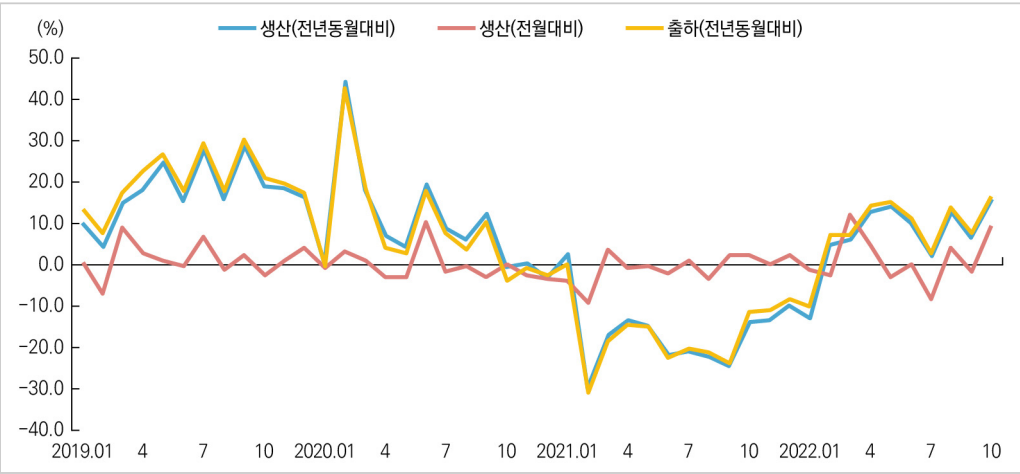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선: 10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10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16.6%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12.7 → (9월)6.6 → (10월)15.8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3.8 → (9월)-2.0 → (10월)9.2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13.7 → (9월)7.7 → (10월)16.6

[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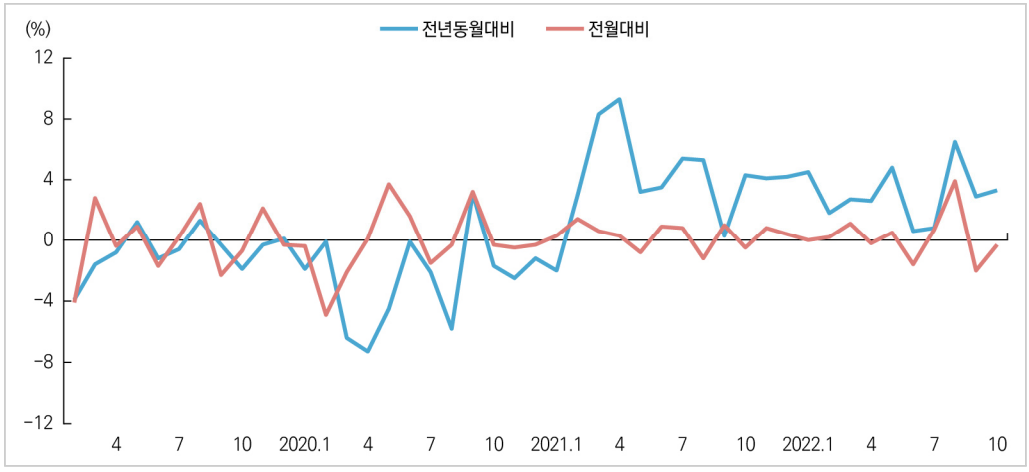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

■ **10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소매업(-2.9%)이 줄었으나 도매업(6.5%)과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4.1%)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6.2%)이 줄어 0.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6.5 → (9월)2.9 → (10월)3.3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3.9 → (9월)-2.0 → (10월)-0.3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금융 및 보험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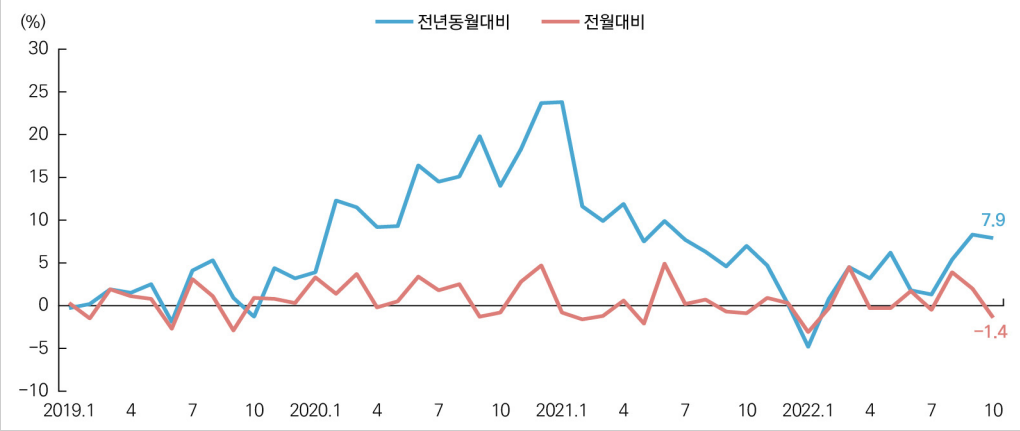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기저효과로 23.3% 감소한 반면, 은행 및 저축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업(14.3%)과 보험업(22.1%)이 증가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7.9% 증가**

- 금융업의 생산이 증가한 것은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5] 은행 및 저축기관의 영업수익이 증가한 데 기인
- 전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5.3%)과 금융업(-1.8%)이 감소하면서 1.4% 감소

5)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수요와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시장 위축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2년 10월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13.7조원(중소기업 4.4조원, 대기업 9.3조원) 순증(한국은행, "2022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11.9.)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 5.4 → (9월)8.3 → (10월)7.9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 3.9 → (9월)2.0 → (10월)-1.4

[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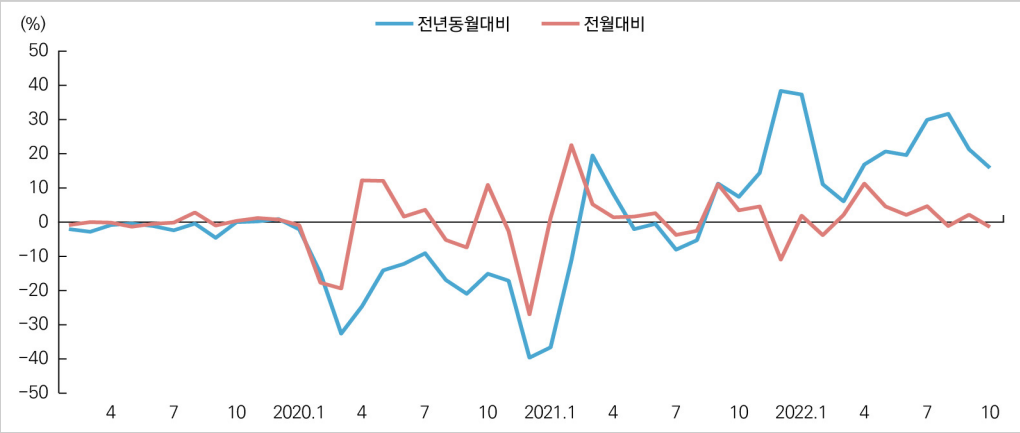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숙박 및 음식점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는 감소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9% 증가, 전월대비는 1.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8월)31.7 → (9월)21.3 → (10월)15.9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8월)-1.1 → (9월)2.2 → (10월)-1.4

[그림 12]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라. 경기종합지수

10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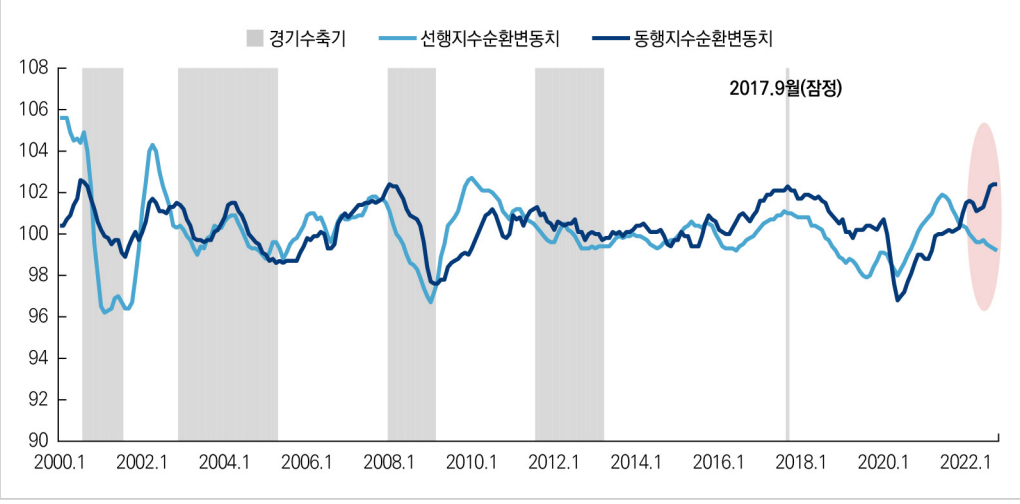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2.4)는 광공업생산, 내수출하지수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8월)0.5 → (9월)0.1 → (10월)0.0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2)는 건설수주액, 코스피 등이 감소하며 전월에 이어 0.1p 하락**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8월)-0.1 → (9월)-0.1 → (10월)-0.1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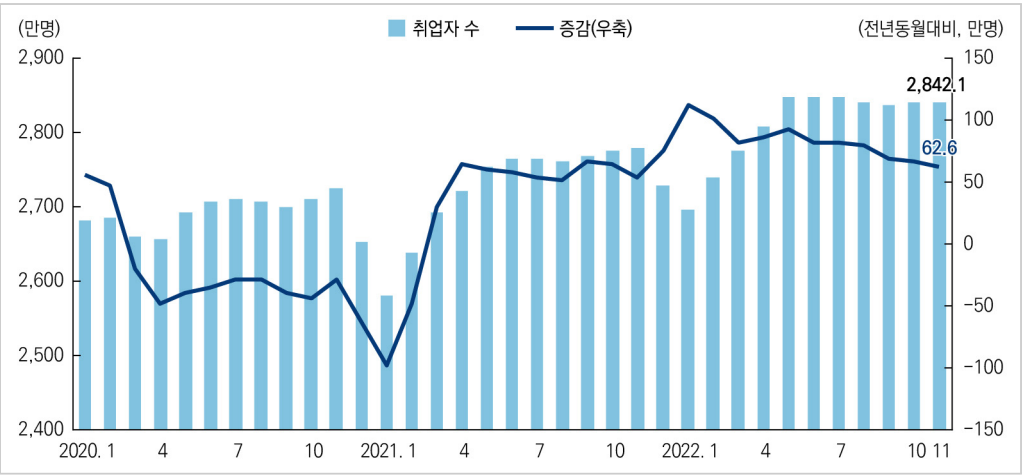
2. 고용

11월 고용은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나, 「취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 둔화

■ **11월 취업자 수는 2842.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6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폭은 지속 축소되고 있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70.7 → (10월)67.7 → (11월)62.6
- 취업자 수 증감(계절조정, 전월대비, 만명): ('22.9월)-2.2 → (10월)-0.5 → (11월)-2.8

[그림 14] 전체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한 64.2%**

- 경제활동참가율(%): ('22.9월)64.2 → (10월)64.3 → (11월)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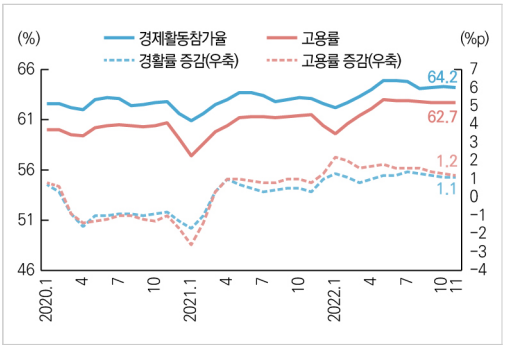
■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한 62.7%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

- 고용률(%): ('22.9월)62.7 → (10월)62.7 → (11월)62.7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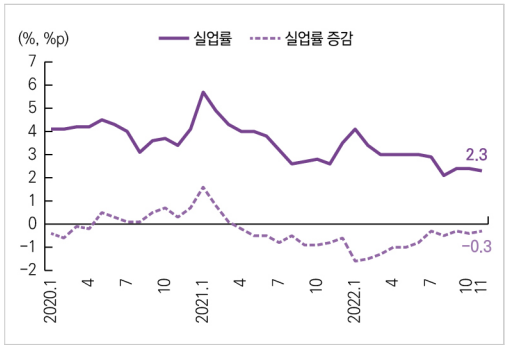
- 실업률(%): ('22.9월)2.4 → (10월)2.4 → (11월)2.3

[그림 15]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6]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의 증가세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확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1만명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생산·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축소**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22.7 → (10월)20.1 → (11월)10.1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4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증가세도 확대**

-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23.1만명)한 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장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6] 취업자 수의 증가세는 지속 둔화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40.1 → (10월)41.5 → (11월)45.4
-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월)34.2 → (6월)24.3 → (11월)8.1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소폭(1.1만명) 증가하여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1.2 → (10월)1.2 → (11월)1.1

11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고령층에서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청년 및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7.9만명 증가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45.1 → (10월)46.0 → (11월)47.9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5만명 감소하여 21개월만에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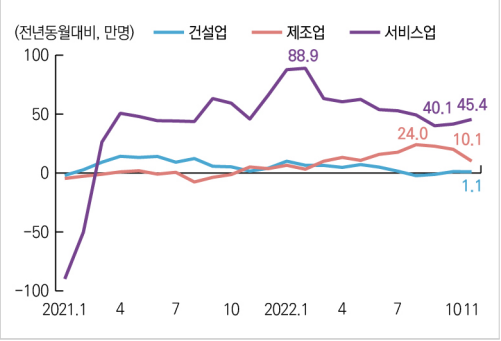
- 청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1.6 → (10월)2.1 → (11월)-0.5

6)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은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을 의미

■ 5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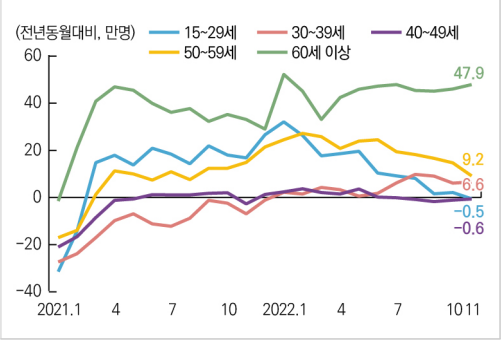
- 3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9.1 → (10월)6.1 → (11월)6.6
- 4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1.7 → (10월)-1.1 → (11월)-0.6
- 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9월)16.6 → (10월)14.7 → (11월)9.2

[그림 17]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8]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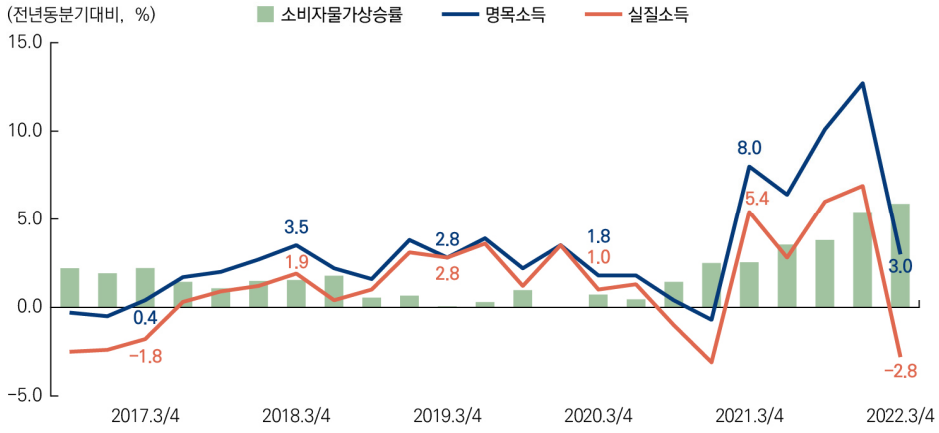
[2022년 3분기 가계소득 동향]

1. 주요 특징

■ **가계소득은 고물가의 영향으로 5분기 만에 실질소득 기준으로 전년동분기대비 감소 전환**

- 2022년 3분기 가계소득은 명목 기준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실질 기준으로는 감소
  -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증감률은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는 유사한 증감률을 보였으나, 물가 상승이 본격화한 2021년 2분기부터 괴리가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감률 추이]



주: 2019년까지 시계열은 비농림어가 대상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소득 구성항목 중 이전소득만 감소
  - 작년 3분기 중 지급되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기저효과로 사회수혜금이 감소하며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26.1%)으로 감소하였기 때문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명목기준으로는 증가 폭 확대, 실질기준으로는 증가 폭 축소**

- 2022년 명목소비지출 증가율은 1분기 4.7%, 2분기 5.8%, 3분기 6.2%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1분기 0.8%, 2분기 0.4%, 3분기 0.3%로 추세적으로 축소
  - 즉, 가계에서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비를 하여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의미

■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감소하고 5분위의 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5분위 배율이 상승**

- 2021년 3분기 중 지급되었던 코로나 상생 지원금의 기저효과로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감소

2. 가계소득 및 가계수지

■ (소득)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명목기준 증가, 실질기준 감소

-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86.9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0% 증가하였으나,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2.8% 감소
- 경상소득은 이전소득의 감소에도 불구,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증가하며 2.6% 증가
- 근로소득은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5.4% 증가
  - 취업자(전년동분기대비, 만명): ('21.3분기)57.7 → ('22.3분기)78.0
  -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전년동분기대비, %): ('21.3분기)5.0 → ('22.3분기)4.0
-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12.0% 증가
  - 자영업자(전년동분기대비, 만명): ('21.3분기)-0.5 → ('22.3분기)15.0
  - 서비스업생산 증감율(전년동분기대비, %): ('21.3분기)3.9 → ('22.3분기)6.0
- 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26.1%)이 작년 3분기 중 지급되었던 코로나 상생 지원금의 기저효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18.8% 감소
  - 공적이전소득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감소
  - 공적이전소득(만원, 증가율): (1분위)47.3, -15.3% (2분위)42.6, -26.0% (3분위)46.3, -25.1% (4분위)39.6, -36.0% (5분위)39.6, -26.9%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전년동분기대비 %)

	금액					증감률		
	'21.3분기	구성비	'22.2분기	'22.3분기	구성비	'21.3분기	'22.2분기	'22.3분기
소득	4,729	100.0	4,831	4,869	100.0	8.0	12.7	3.0
경상소득	4,666	98.7	4,739	4,788	98.3	8.3	12.6	2.6
근로소득	2,954	62.5	2,887	3,114	64.0	6.2	5.3	5.4
사업소득	885	18.7	927	991	20.4	3.7	14.9	12.0
재산소득	24	0.5	33	30	0.6	-23.9	-22.9	28.7
이전소득	804	17.0	893	652	13.4	25.3	44.9	-18.8
공적이전	583	12.3	679	431	8.9	30.4	61.5	-26.1
사적이전	221	4.7	214	221	4.5	13.4	9.2	0.2
비경상소득	63	1.3	92	81	1.7	-10.0	16.1	28.4

■ (비소비지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및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소비지출과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

- 비소비지출은 비경상조세(-15.6%)는 감소하였으나, 경상조세(1.5%), 연금기여금(2.7%), 사회보험료(10.1%), 가구간이전지출(7.9%) 등이 증가함에 따라 6.6% 증가

■ **(가계수지)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2.0% 증가하였으나, 흑자액은 6.6% 감소
- 평균소비성향은 70.2%로 전년동분기대비 2.8%p 상승
- 적자가구 비율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하였으나, 1분위에서 가장 큰 폭(8.0%p)으로 상승하였고, 전체 적자가구 비율은 25.3%로 전년동분기대비 3.7%p 상승
  -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1분위)57.7 (2분위)25.4 (3분위)18.5 (4분위)14.9 (5분위)10.0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 및 평균소비성향]

(단위: 천원, 전년동기대비 %, %p)

	금액			증감률		
	'21.3분기	'21.2분기	'22.3분기	'21.3분기	'21.3분기	'22.3분기
처분가능소득	3,773	3,943	3,850	7.2	14.2	2.0
흑자액[1]	1,229	1,323	1,148	12.4	35.2	-6.6
흑자율(%)[2]	32.6	33.6	29.8	1.5p	5.2p	-2.8p
평균소비성향(%)[3]	67.4	66.4	70.2	-1.5p	-5.2p	2.8p

주: 1) 처분가능소득= 소득-비소비지출
2) 흑자액=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3) 흑자율=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4)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3. 소득분배

■ **(소득분배) 소득 5분위 배율로 평가된 소득분배 수준은 전년동분기대비 악화**

- 2022년 3분기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동분기(5.34배) 대비 0.41배p 상승한 5.75배
  - 2021년 3분기 중 소득 하위 88% 가구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것의 기저효과로 인해 1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결과
  -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감소액은 5분위에 비해 적으나,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분위에서 더 커 분배가 악화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체가구)]

(단위: 배, 배p)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감 (전년동분기대비)	4분기
2019a	7.40	6.63	6.85	-0.01	6.58
2019b	6.74	5.74	5.76	-	5.83
2020	6.89	5.03	5.92	0.16	5.78
2021	6.30	5.59	5.34	-0.58	5.71
2022	6.20	5.60	5.75	0.41	

주: 1) 2019년 개편 후 5분위 배율은 기존 조사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존 조사에서 작성된 5분위배율과 비교 불가능
2) 2019년 자료는 개편전 a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개편 후 b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구분
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상위 20%(5분위)/하위 20%(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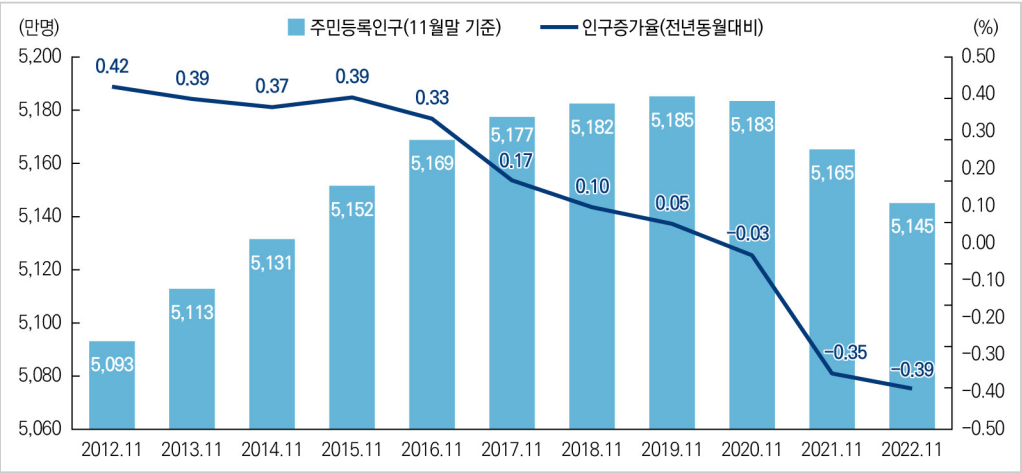
3. 인구

11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만 2천명(-0.39%) 감소

■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22년 11월 주민등록인구는 5.1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9% 감소**

- 각 연도 11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9년까지 증가세(0.05%)를 보였으나, 2020년 감소 전환(-0.03%)한 뒤 2022년 -0.39%로 감소폭 확대

[그림 19]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11~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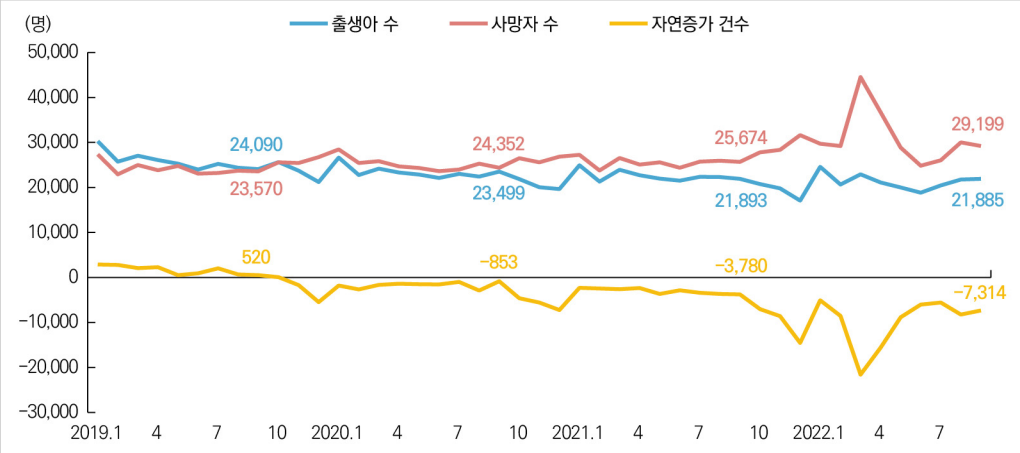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9월 「출생아 수」는 소폭 증가 하나 「사망자 수」를 하회하여 35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9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과 유사한 2만 1,885명을 기록하여 8월 출생아 수(2만 1,758명)에 비해 소폭 증가**

■ **9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25명(13.7%) 증가한 2만 9,199명으로 8월 사망자 수(3만 1명)에 비해 소폭 감소**

[그림 20]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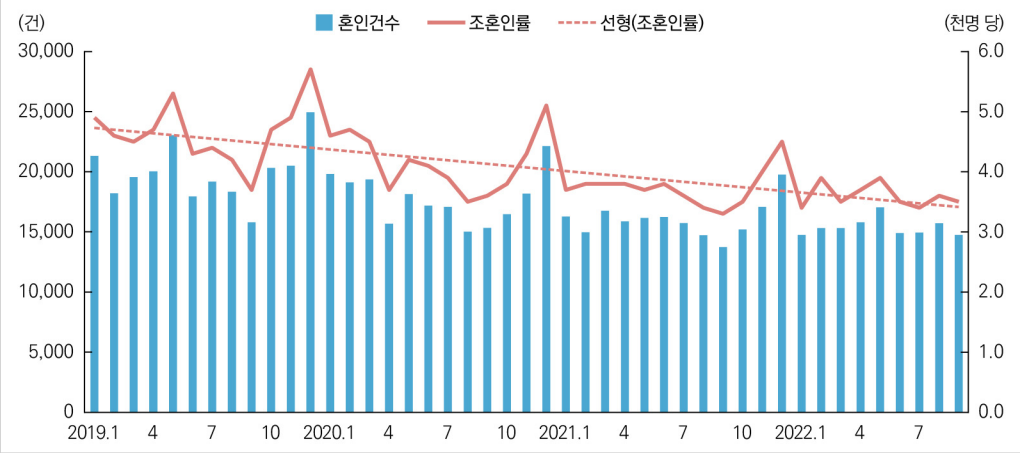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9월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혼인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던 기저효과 등으로 9월 혼인건수는 1만 4,74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15건(7.4%) 증가하였고, 조혼인율은 3.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2건 증가**

- 조혼인율(9월 기준): ('19.9월)3.7건 → ('20.9월)3.6건 → ('21.9월)3.3건 → ('22.9월)3.5건

[그림 21]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2022.9)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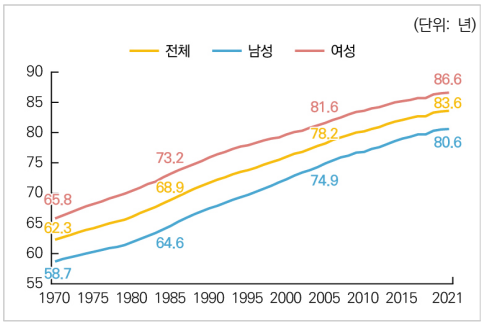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1년 생명표]

■ 2021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6년(남성 80.6년, 여성 86.6년)으로 전년대비 0.1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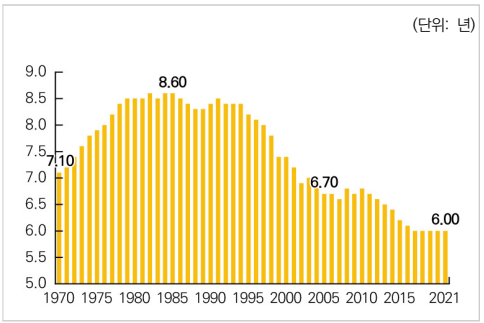
- 통계청은 성·연령별 사망자수 및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생명표를 작성·발표(2022.12.6.)
  -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표임.
- 2021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자는 86.6년이며,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6.0년으로 1985년(8.6년) 이후 감소 추세

[성별 기대수명]



자료: 통계청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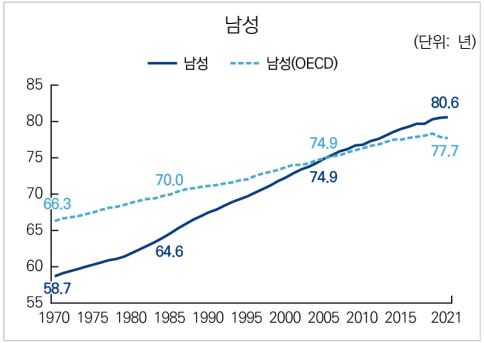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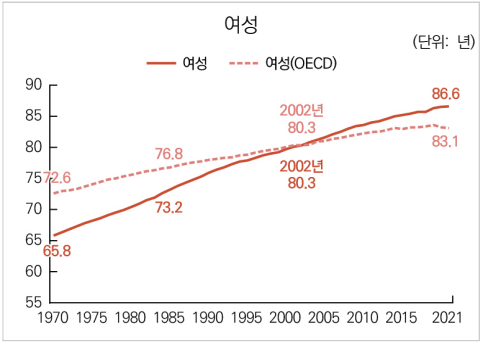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성 2.9년, 여성 3.5년 더 높은 수준

- 1970년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빨라 남성은 2006년, 여성은 2003년부터 OECD 평균을 상회함
- 2021년 남성 기대수명(80.6년)은 OECD 평균(77.7년)보다 2.9년 높으며, 여성 기대수명(86.6년)은 OECD 평균(83.1년)보다 3.5년 높은 수준

[대한민국과 OECD 평균의 성별 기대수명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Ⅲ

금융·자산

국내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감속 기대 등으로 「국고채금리」 및 「환율」이 하락

■ **11월 국고채금리는 글로벌 물가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부각되며 전월 대비 하락**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22.9월말)4.2 → (10월말)4.2 → (11월말)3.7

■ **11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약화 기대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조정,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 ('22.9월말)1,435 → (10월말)1,419 → (11월말)1,332

11월 중 「석유, 석탄, 천연가스, 농산물, 식품」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금속·광물, 귀금속」은 상승

■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3.3%, 12.2%, 0.5% 하락**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9월)88.2 → (10월)90.3 → (11월)87.4
- 석탄 가격(달러/톤): ('22.9월)430.8 → (10월)389.8 → (11월)342.2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2.9월)23.7 → (10월)21.8 → (11월)21.7

■ **농산물, 식품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0.4%, 0.1% 하락한 반면,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5.0%, 4.4% 상승**

- 농산물 지수: ('22.9월)117.2 → (10월)116.2 → (11월)115.8
- 식품 지수: ('22.9월)136.5 → (10월)137.7 → (11월)137.5
- 금속·광물 지수: ('22.9월)97.9 → (10월)96.1 → (11월)100.9
- 귀금속 지수: ('22.9월)126.4 → (10월)125.8 → (11월)131.3

11월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나 가스발전의 연료비 상승세가 지속됨

■ **총 발전량의 2/3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연료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가스발전의 연료비단가는 270.4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의 연료비단가도 88.3% 상승**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 예상등으로 하락폭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1.02% → -1.77)과 지방(-0.55% → -1.01)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은(-0.77% → -1.37) 하락폭이 확대**

1. 금융시장

가. 금리

11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도 전반적 하락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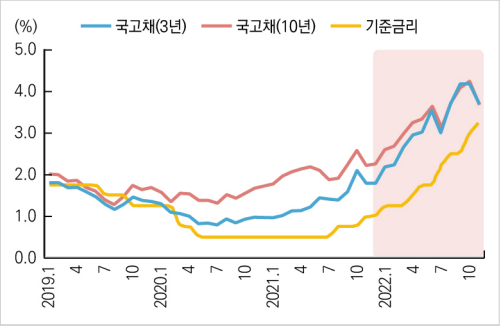
■ **2022년 11월 국고채금리는 글로벌 물가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감속 가능성이 대두되며 하락**

- 11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7%로 전월 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도 전월 대비 0.6%p 하락한 3.7%를 기록
- 다만 11월말 기준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전년말 대비 각각 1.9%p, 1.4%p 상승한 수준

■ **한편 11월 미국, 유로존, 일본 국채(10년) 금리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전반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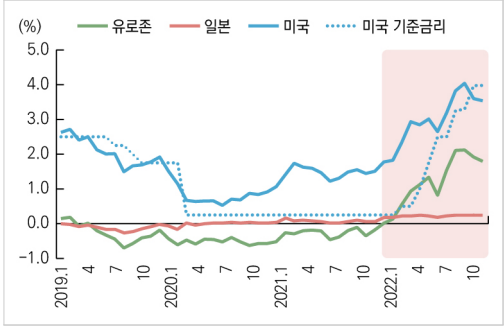
-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10월말 4.0%에서 11월말 3.6%, 유로존 국채(10년)는 2.1%에서 1.9%로 하락하였으며 일본 국채(10년)는 동기간 0.3% 수준을 유지
-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2022년 10월 3.25%에서 2022년 11월 기준 4.00%로 0.75%p 상승

[그림 1] 우리나라 국고채 및 기준 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2] 주요국 국채(10년)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Datastream

11월 「회사채 금리」는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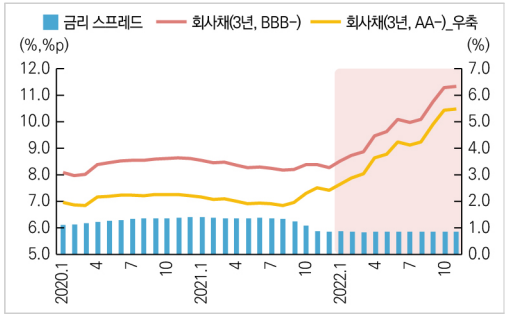
■ **11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물가불안 완화에도 불구하고 원화 단기자금조달시장 불안이 지속되며 소폭 상승**

- 11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 대비 5bp 상승한 5.5%,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전월 대비 4bp 상승한 11.3%를 기록
- 한편 회사채(3년, 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 금리는 2022년 10월 이후 각각 5%, 11%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대출 금리가 중소기업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출 금리차는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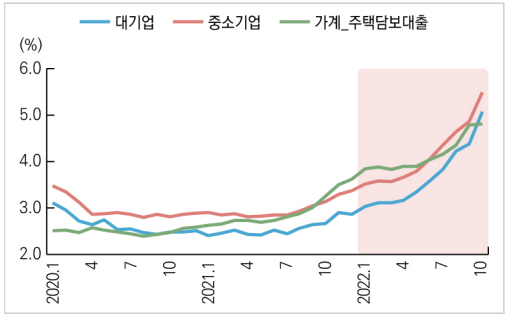
- 10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70bp 상승한 5.1%,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62bp 상승한 5.5%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49bp에서 41bp로 축소
- 한편 10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3bp 상승한 4.8%를 기록한 가운데 10월 금리 4.8%는 201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

[그림 3]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4]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11월 「원/달러 환율」 및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하락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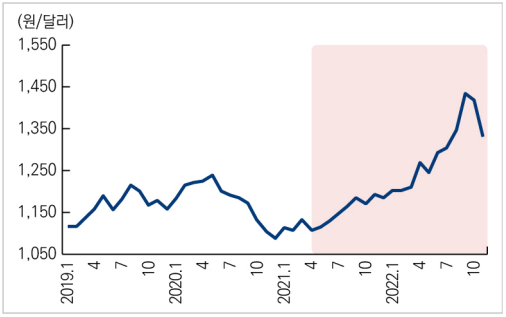
■ **11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에 따른 달러화 가치 조정,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

- 11월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32원으로 전월말 1,419원 대비로는 6.2% 하락
- 한편 11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년말 1,186원 대비로는 12.3% 상승

■ 11월 유로화, 엔화,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도 전월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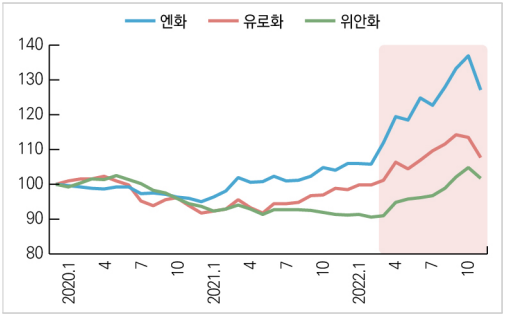
- 11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물가리스크 완화 등으로 전월말 대비 각각 5.0%, 7.2%, 2.9% 상승
- 한편 11월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가치는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9.3%, 20.0%, 11.6% 하락

[그림 5]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6]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추이



주: 1) 2019년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다. 주가

11월 「국내 주가」와 「글로벌 주가」는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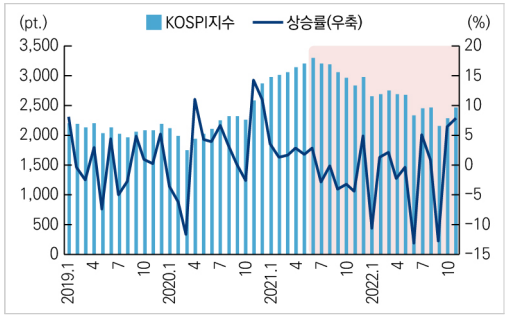
■ 국내 주가는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와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 11월말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294) 대비 7.8% 상승한 2,473을 기록
- 11월 중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을 4.1조원 순매수

■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2022년 중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11월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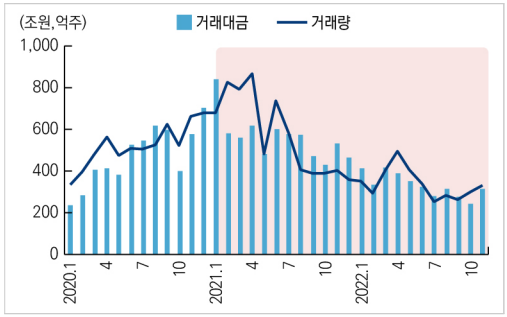
-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2022년 1월 413조원에서 10월 245조원으로 축소되었으나 11월 315조원 규모로 확대
- 한편 주식시장 거래량도 2022년 1월 353억 주 규모에서 2022년 9월 262억 주 규모로 축소되었으나 11월 329억 주 규모로 확대

[그림 7] KOSPI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그림 8] 주식시장 거래대금 및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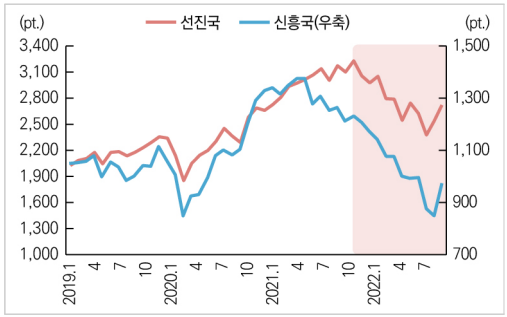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 11월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물가리스크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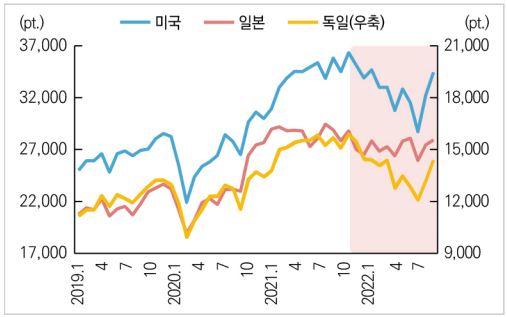
- 11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6.8%, 신흥국 주가는 14.6% 상승
- 한편 11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 주가도 전월말 대비 각각 5.7%, 8.6%, 1.4% 상승

[그림 9]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10]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11월 「석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하락

■ **원유 가격은 배럴당 87.4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3% 상승한 반면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3.3% 하락**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9월)88.2 → (10월)90.3 → (11월)87.4

11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석탄 가격은 톤당 342.2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7.3%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12.2% 하락**

- 석탄 가격(달러/톤): ('22.9월)430.8 → (10월)389.8 → (11월)3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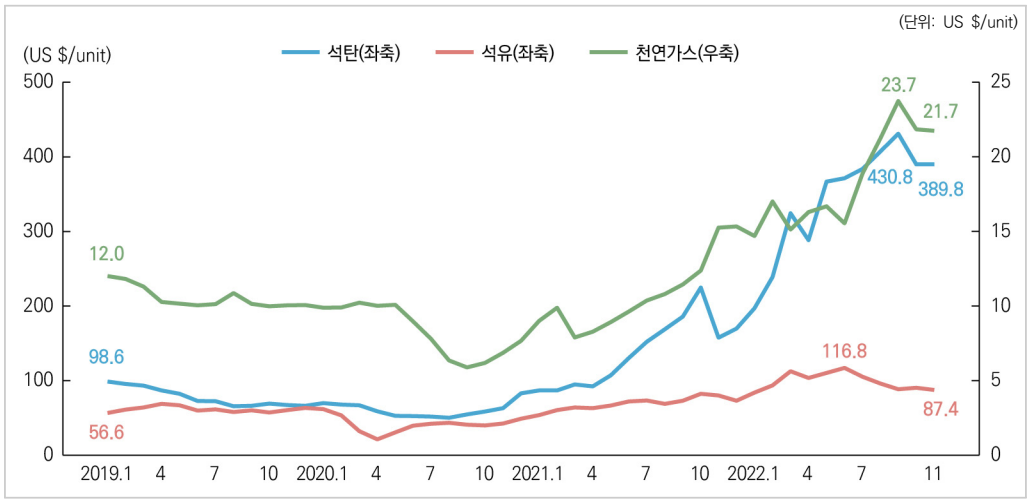
11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21.7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2.5%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0.5% 하락**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5.2달러/MMbtu)은 전월대비 6.1%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35.7달러/MMbtu)은 전월대비 8.5%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29.3% 상승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7])): ('22.9월)23.7 → (10월)21.8 → (11월)21.7

7)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1]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11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농산물 지수는 115.8로 대두유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0.4% 하락**

- 농산물 지수: ('22.9월)117.2 → (10월)116.2 → (11월)115.8

11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식품 지수는 137.5으로 닭고기, 오렌지, 바나나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2%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0.1% 하락**

- 식품 지수: ('22.9월)136.5 → (10월)137.7 → (11월)137.5

11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금속·광물 지수는 100.9로 주석, 구리, 아연, 철광석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5% 하락한 반면, 니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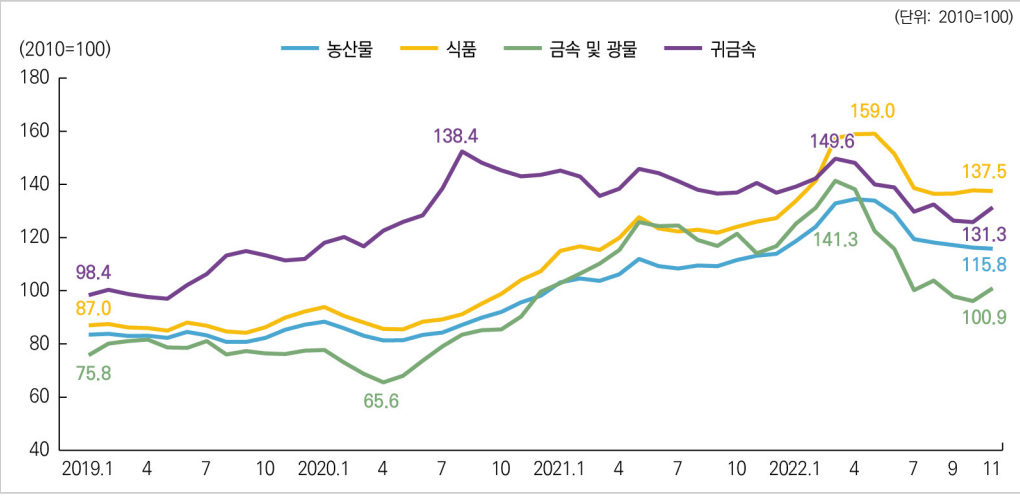
- 금속·광물 지수: ('22.9월)97.9 → (10월)96.1 → (11월)100.9

11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귀금속 지수는 131.3로 은과 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6% 하락한 반면, 전월대비 4.4% 상승**

- 귀금속 지수: ('22.9월)126.4 → (10월)125.8 → (11월)131.3

[그림 12]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국내 에너지 수요]

■ 2022년 9월 「최종에너지 소비」[8]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최종에너지 소비는 액화천연가스,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열(10.0), 전력(1.4), 도시가스(1.0), 석유(0.6), 신재생 및 기타(-2.5), 석탄(-18.8), 액화천연가스(-19.9)
- 전월대비로는 액화천연가스, 석탄, 열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6.8% 감소
  - 전월대비 증감률(%): 도시가스(-2.0), 석유(-4.0), 신재생 및 기타(-9.4), 전력(-9.4), 열(-11.7), 석탄(-13.6), 액화천연가스(-18.7)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

	2019	2020	2021p	2022p			
				9월	8월	9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1,353	222,563	234,665	18,783	19,670	18,341	-2.4	-6.8
전년동기대비	-0.9	-3.8	5.4	5.7	2.6	-2.4		
석탄	32,057	30,457	31,810	2,665	2,504	2,164	-18.8	-13.6
석유	116,125	109,344	116,713	9,946	10,422	10,009	0.6	-4.0
액화천연가스	2,909	3,602	3,478	279	275	223	-19.9	-18.7
도시가스	23,943	23,100	24,287	1,142	1,177	1,153	1.0	-2.0
전력	44,763	43,797	45,875	3,854	4,314	3,907	1.4	-9.4
열	2,647	2,770	2,901	85	105	93	10.0	-11.7
신재생 및 기타	8,910	9,493	9,602	812	873	791	-2.5	-9.4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8)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나. 전력수급동향

11월 「전력공급예비력」은 예년수준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석탄발전설비 공급이 증가

■ 11월 공급예비력은 10.6GW, 전력공급예비율 12.9%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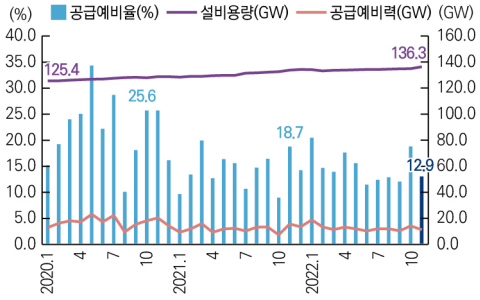
- 발전설비용량은 136.3GW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했는데, 신규석탄발전(삼척블루파워 1호기)이 준공됨에 따라 1,040MW 증가했으며 태양광은 203MW 증가

※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11월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는 유연탄은 전년동월대비 88.3% 상승했으며 가스발전은 전년동월대비 100.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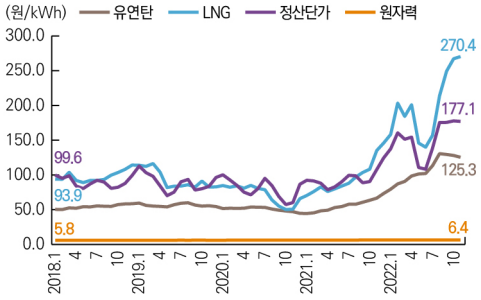
-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하는데,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125.3원으로 전월대비는 2.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88.3% 상승했으며, 가스발전은 270.4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77.1원으로 전년동월(107.7원)보다 64.4% 상승

[그림 13] 월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공급예비율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4]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1월 「전력거래량」은 이례적인 고온현상으로 전년동월대비 다소 감소

■ **11월 전력거래량※은 44,387GWh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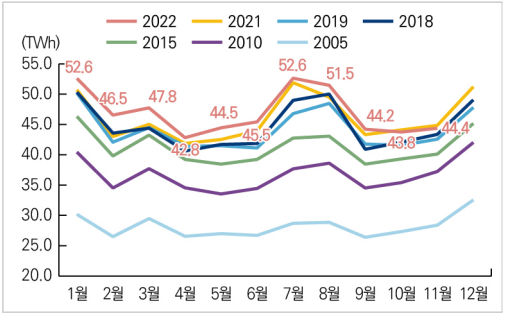
- 11월은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 전력수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 금년 1~11월 누적 전력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1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원자력이 3.5%, 신재생 및 기타가 17.4% 증가했으며, 석탄과 가스는 각각 6.7%, 3.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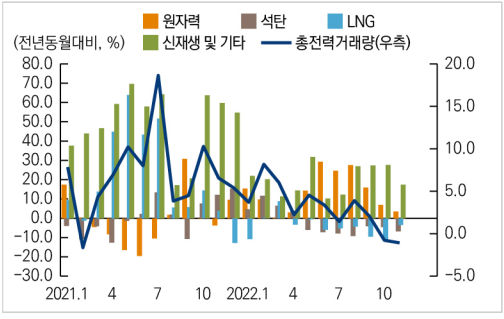
- 원전은 정비가 완료된 원전이 늘어나면서 연평균 이용률 8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9)]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0.0%, 석탄 32.5%, 가스 27.9% 신재생 및 기타 8.7% 순

[그림 15]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6]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0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1.2% 증가했는데, 산업부문의 수요는 0.6% 증가한데 비해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수요가 각각 1.3%와 3.4% 증가**

■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6.6% 감소하여 기후조건에 따른 월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월대비 산업부문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냉방수요가 감소한 가정, 공공, 서비스부문의 전력소비가 감소했기 때문

9) 한빛 4호기는 2017년 정기검사에서 공극이 발견되어 장기 보수를 진행했으며 원안위(12.9)에서 운영 안전성을 확인함에 따라 5년만에 발전을 재개함

[표 1]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19	2020	2021	2022p				
				10월	9월	10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20,499	509,270	533,431	41,838	45,317	42,343	1.2	-6.6
전년동기대비	-1.1	-2.2	4.7	7.1	1.1	1.2		
가정부문	70,455	74,073	77,558	5,908	7,184	5,864	-0.7	-18.4
공공부문	24,458	23,623	25,026	1,827	2,063	1,850	1.3	-10.3
서비스부문	145,816	142,881	148,315	11,100	12,992	11,477	3.4	-11.7
산업부문	283,705	268,692	281,532	23,003	23,077	23,152	0.6	0.3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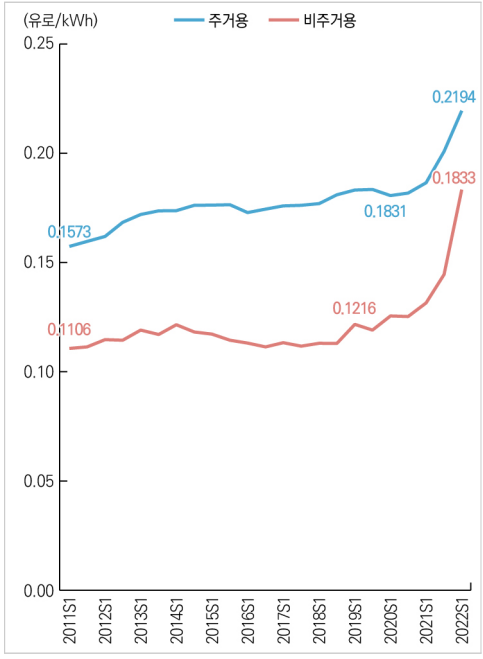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최근 주요국 전기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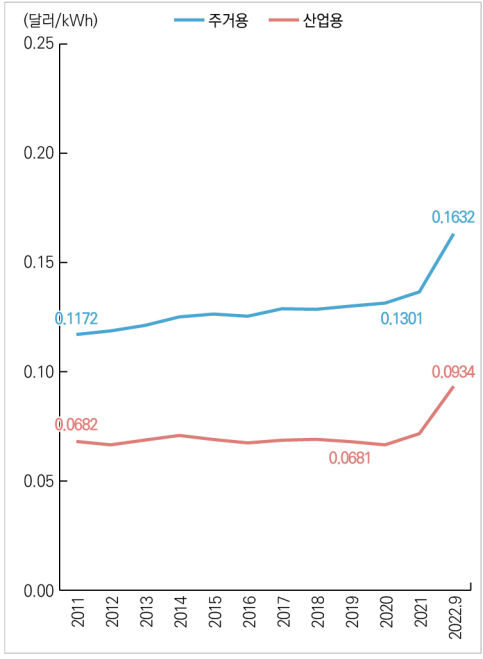
■ 2022년 EU와 미국의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상승

- EU의 2011년부터 2021년 전기요금은 연평균 1.7% 증가하여 완만한 상승세였으나, 2022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주거용은 17.7%, 비주거용은 39.5% 상승
  - 주거용 전기요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1MWh당 0.1831유로에서 2022년 상반기에 0.2194유로로, 비주거용 전기요금은 각각 0.1216유로에서 0.1833유로로 상승
- 미국의 2011년부터 2021년 전기요금은 연평균 1.5% 증가하여 완만한 상승세였으나, 2022년(9월)은 전년대비 주거용 19.5%, 비주거용 30.1% 상승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시 주거용 전기요금은 1kWh당 0.1301달러에서 2022년(9월) 0.1632달러로 25.4%, 비주거용 전기요금은 0.0681달러에서 0.0934달러로 37.1% 상승

[EU 전기요금]



[미국 전기요금]



자료: eurostat

- EU 주요국의 코로나19 전후 전기요금은 국가별 및 용도별로 차이가 큰 편으로 기존 전기요금이 낮았던 국가와 비주거용 전기요금의 상승률이 높았음
  - 주거용 전기요금 상승률은 독일 6.2%, 프랑스 17.3%, 이탈리아 35.4% 등
  - 비주거용 상승률은 독일 104.7%, 프랑스 24.1%, 이탈리아 141.4% 등

[EU 주요국의 코로나19 전후 전기요금 변화]

(단위: 유로/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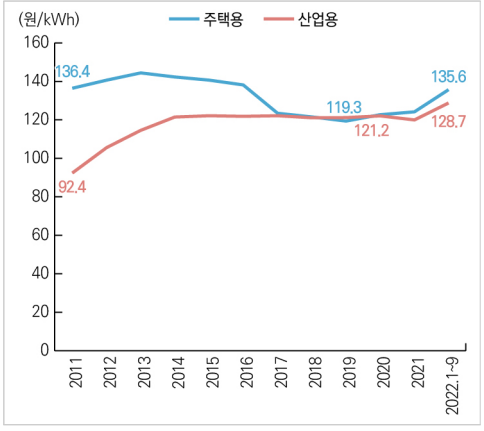
	EU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주거용								
2019년	0.2170	0.3088	0.1867	0.1778	0.2033	0.2403	0.2301	0.1595
2022년	0.2525	0.3279	0.1994	0.2086	0.2525	0.3071	0.3115	0.2305
변화	16.4%	6.2%	6.8%	17.3%	24.2%	27.8%	35.4%	44.5%
비주거용								
2019년	0.1505	0.093	0.1031	0.1225	0.1409	0.1205	0.1157	0.1191
2022년	0.222	0.1904	0.1513	0.152	0.1459	0.1928	0.2793	0.321
변화	47.5%	104.7%	46.8%	24.1%	3.5%	60.0%	141.4%	169.5%

자료: eurostat

■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전력판매단가는 주요국 대비 소폭 상승

- 2022년 9월 한국의 전력판매단가는 1kWh당 주택용이 135.6원으로 2011년 대비로는 -0.6%, 2019년 대비로는 13.7% 상승했으며, 산업용은 2011년 대비 39.4%, 2019년 대비로는 6.3% 상승
-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비해 전력판매단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쳐 전력판매단가가 연료비단가([그림 14] 참고)에 미치지 못하여 한국전력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됨
  - 한국전력의 매출원가율은 1/4분기에 이미 100%를 초과한 147%를 기록[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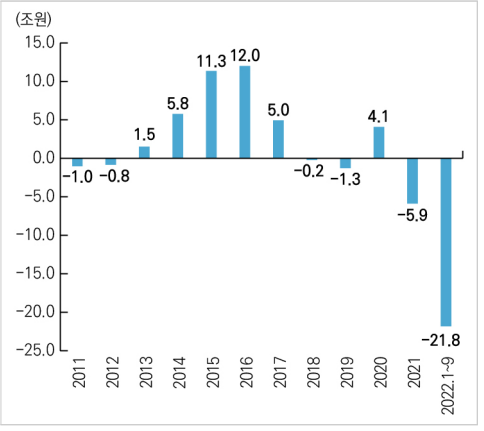
[한국 전력판매단가]



주: 전력판매단가에 부가세(10%)와 전력기반기금(3.7%)을 추가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자료: 전력통계월보

[한국전력 영업이익]



주: 연결재무재표 기준

자료: 한국전력 사업보고서

10) 국회예산정책처,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II」, 2022.7

[코로나19 이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세계 주요국은 NDC(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 및 발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
-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

[주요 국가 NDC 설정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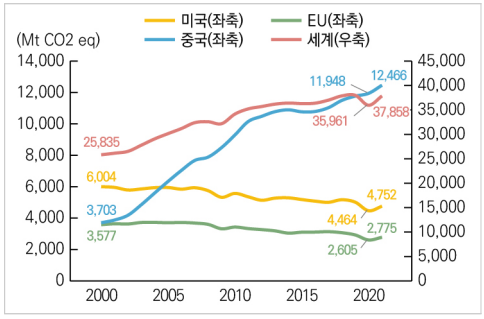
국가	기준연도	감축비율
한국	2018	40%
미국	2005	50~52%
EU	1990	55%
영국	1990	68%
일본	2013	46%
중국	2005	65%

자료: UN기후변화협약(UNFCCC)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코로나 기간 감소세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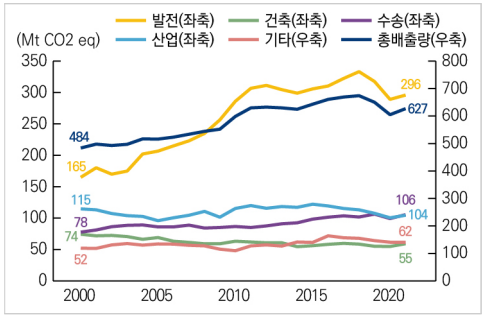
-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2020년 온실가스 세계배출량은 감소
- 2021년 코로나19 여파 감소로 인한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하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는 낮은 수준의 배출량을 보임
-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장기 추세는 상이
  - 선진국(미국, EU)의 경우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 연도와 비교해 상승했지만, 20년 장기 추세는 감소세
  -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년간 증가추세 유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자료: JRC

[한국의 온실가스 부분별 및 총배출량]



자료: JRC

11)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료마다 차이가 다소 있으나 추세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본 원고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하여 유럽연합위원회(EC)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가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음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장기적 상승추세**

- 2018년을 정점으로 2019~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배출량 상승으로 전환
  - 하지만 2019년과 2021년 배출량은 각각 650 Mt CO2 eq, 627 Mt CO2 eq로 코로나 이전보다는 낮은 상황
- 부분별로 살펴보면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수송, 산업, 기타, 건축 순임
  - 200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분별 배출량 중 두 번째로 많았으나,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 2021년에는 수송보다 낮은 세 번째 순위를 기록
  - 발전, 수송은 배출량이 증가추세이며 산업, 건축은 배출량 감소 추세

■ **한국의 NDC 달성을 위한 노력 방안**

-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5%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필요
  - 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0.4% 증가로, NDC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12)]
-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만큼,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필요성 증가
  - 2021년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47%
- 수송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인 만큼 전기차 및 저공해 운송 수단의 점유율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수소 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친환경 산업 육성의 중요성 증가

1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 - 성장 및 금융 부문」 2022.10.

3. 부동산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 예상등으로 하락폭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1.37%, 수도권 -1.77%, 지방은 -1.01%로 하락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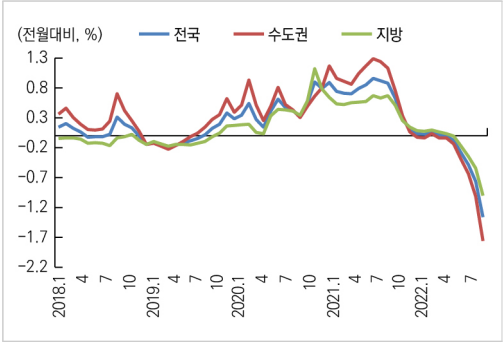
- 수도권은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대한 예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
- 지방은 세종 -2.33%, 울산 -1.86%, 대전 -1.64%, 대구 -1.56% 순으로 하락폭이 확대

11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전·월세 매물 적체 현상 심화 등으로 하락폭 확대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전국 -1.03%, 수도권 -1.47%, 지방 -0.63%로 전월보다 하락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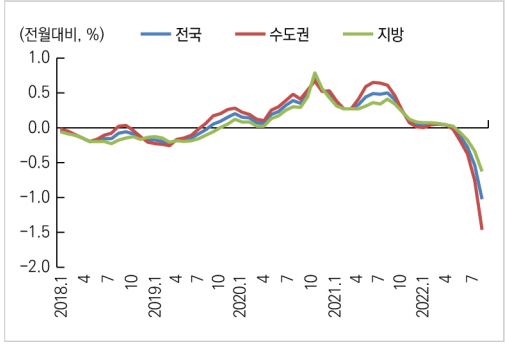
- 수도권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조달 비용 증가, 매물 적체 심화등으로 전세 가격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전월세가격 하락폭이 확대
- 지방은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큰 세종(-1.67%), 대구(-1.41%), 울산(-1.26%), 대전(-1.09%) 등을 중심으로 전월세가격 하락폭이 확대

[그림 17]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18]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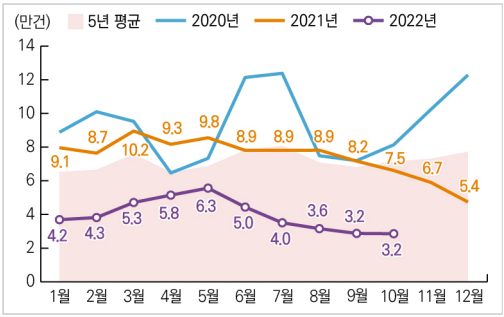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수도권 거래감소로 전월대비 0.7% 감소

■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2,173건으로 전월대비 0.7% 감소, 전년동월대비 57.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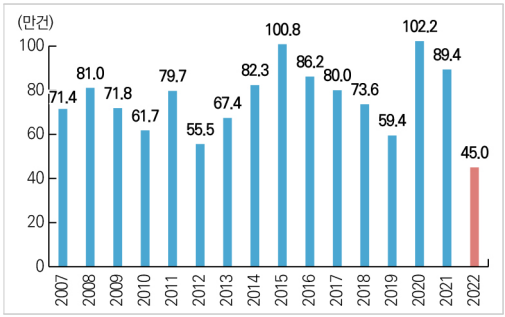
- 수도권(1.2만건)은 전월대비 4.0% 감소, 전년동월대비 62.2% 감소
- 지방(2.0만건)은 전월대비 1.4% 증가, 전년동월대비 53.7% 감소

[그림 19]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0] 연도별 10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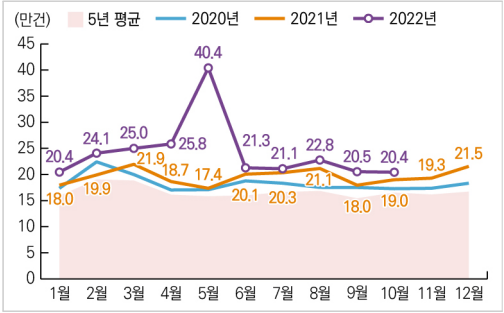
10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4,403건으로 전월대비 0.4% 감소, 전년동월대비 7.6%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51.8%로 전월대비 1.8%p 감소, 전년동월대비 7.2%p 증가

※ 6월 거래량 감소는 전월의 일시적 신고건수 증가(미신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 만료일('22.5.31.)이 도래됨에 따라 신고를 미뤄왔던 계약의 일시적인 신고건수 증가)에 다른 영향으로 실제 전월세 거래가 감소된 것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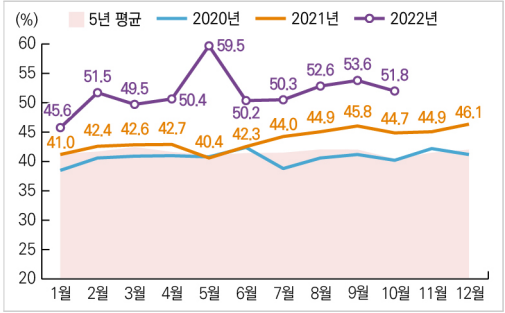
[그림 21]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2]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Ⅳ

해외경제 동향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주요 경제심리지표가 위축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8월)-0.1 → (9월)0.1 → (10월)-0.1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2.9월)50.9 → (10월)50.2 → (11월)49.0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2.9월)107.8 → (10월)102.2 → (11월)100.2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 - 2년물, %p): ('22.9월)-0.34 → (10월)-0.40 → (11월)-0.61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8월)4.2 → (9월)6.3 → (10월)5.0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8월)5.4 → (9월)2.5 → (10월)-0.5
- 종합PMI: ('22.9월)50.9 → (10월)49.0 → (11월)47.1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 둔화

- 산업생산(전월대비, %): ('22.7월)-2.3 → (8월)2.0 → (9월)0.9
- 종합PMI: ('22.9월)48.1 → (10월)47.3 → (11월)47.8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8월)0.0 → (9월)0.8 → (10월)-1.8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7월)9.9 → (8월)10.6 → (9월)10.0

일본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생산이 감소하며 회복이 정체되는 모습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8월)3.4 → (9월)-1.7 → (10월)-2.6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8월)1.3 → (9월)1.5 → (10월)0.2
- 종합PMI: ('22년.8월)49.4 → (9월)51.0 → (10월)51.8 → (11월)48.9

1. 미국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경제심리지표가 위축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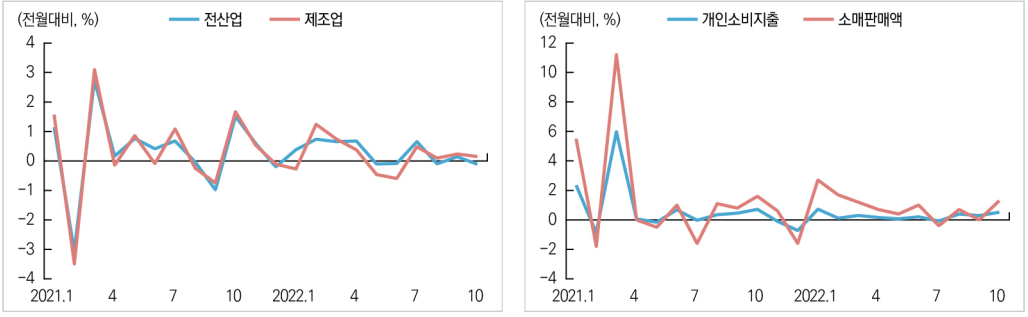
■ **10월 중 「전산업생산」은 소폭 감소 전환되었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11월 중 49.0로 전월대비 1.2포인트 하락하며 6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8월)-0.1 → (9월)0.1 → (10월)-0.1
-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2.8월)0.1 → (9월)0.2 → (10월)0.1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2.9월)50.9 → (10월)50.2 → (11월)49.0

■ **10월 중 「실질개인소비지출」은 내구재소비(9월 0.0% → 10월 2.7%)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지만, 11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에 이어 하락**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2.8월)0.4 → (9월)0.3 → (10월)0.5
-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2.8월)0.7 → (9월)0.0 → (10월)1.3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2.9월)107.8 → (10월)102.2 → (11월)100.2

[그림 1]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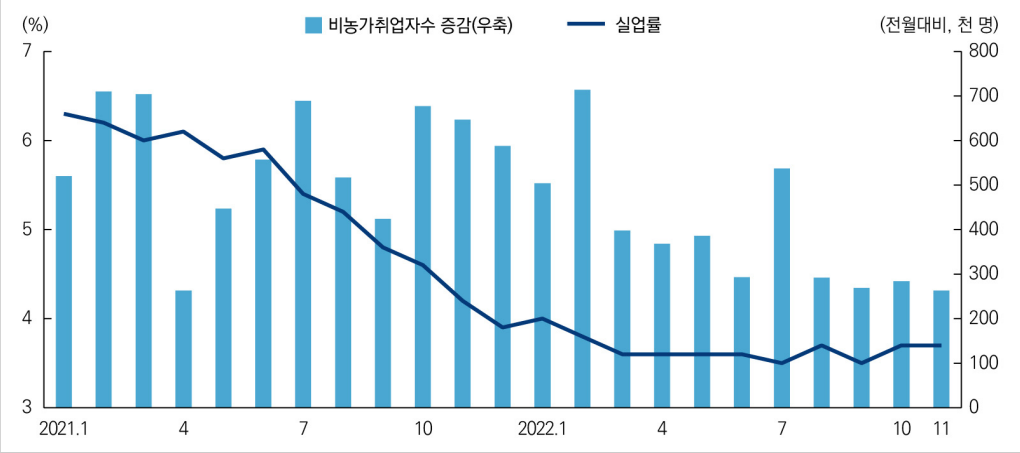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11월 중 노동시장은 견실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11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6.3만 명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교육·의료(8.2만명), 여가·음식숙박업(8.8만명) 등의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실업률은 3.7%로 전월 수준 유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2.9월)26.9 → (10월)28.4 → (11월)26.3

- 실업률(%): ('22.9월)3.5 → (10월)3.7 → (11월)3.7
- 경제활동참가율(%): ('22.9월)62.3 → (10월)62.2 → (11월)62.1

[그림 2]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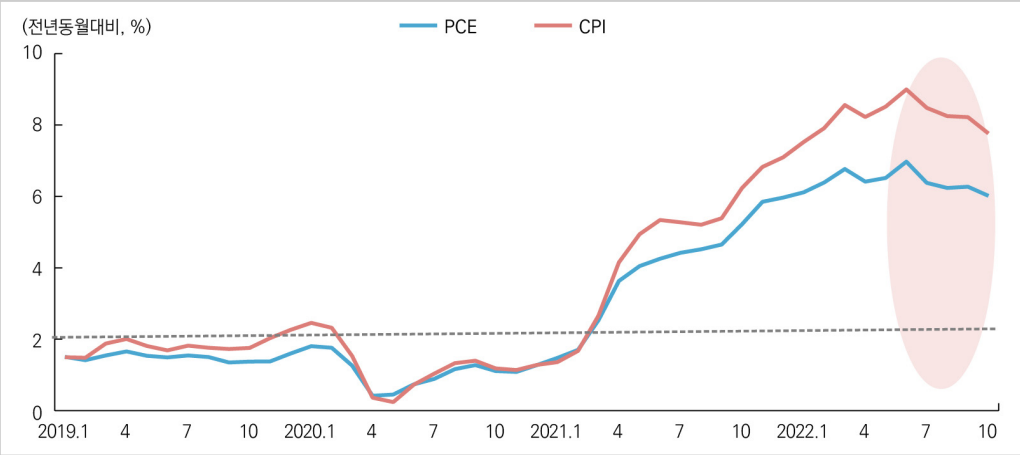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7%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11월 중 기대인플레이션도 소폭 하락**

- PCE물가지수(전년대비, %): ('22.8월)6.2 → (9월)6.3 → (10월)6.0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8월)8.3 → (9월)8.2 → (10월)7.7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2.9월)4.8 → (10월)5.1 → (11월)4.9

[그림 3]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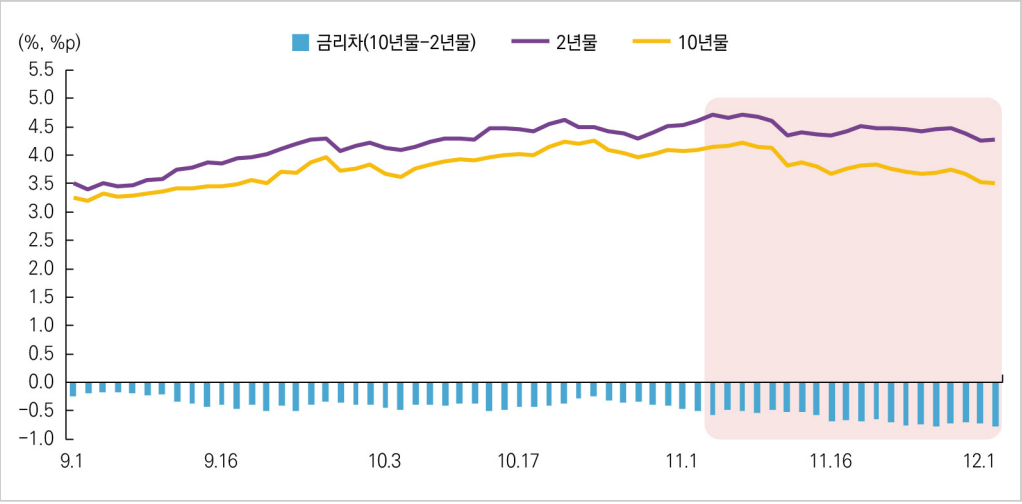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11월 중 시장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와 단리금리 역전 현상이 전월보다 심화**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월평균 3.89%로 전월대비 0.09%p 하락하였으나, 단기금리(2년물기준)는 월평균 4.50%로 전월대비 0.12%p 상승하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전월보다 심화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2.9월)3.52 → (10월)3.98 → (11월)3.89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2.9월)3.86 → (10월)4.38 → (11월)4.50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 - 2년물, %p): ('22.9월)-0.34 → (10월)-0.40 → (11월)-0.61

[그림 4]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와 기간금리차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미연준은 11월 FOMC 회의(11.1~11.2)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지난 6월, 7월, 9월 회의에 이어 4회 연속으로 0.75%p(3.00~3.25% → 3.75~4.00%) 인상**

- 인플레이션 목표치 2.0%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리의 지속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정책금리 인상 속도 결정시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상황을 고려할 것임을 명시
- 파월 연준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경기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발언(11. 30)

2.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 10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산업별로는 광업(4.0%), 제조업(5.2%), 전기·가스·수도업(4.0%)에서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8월)4.2 → (9월)6.3 → (10월)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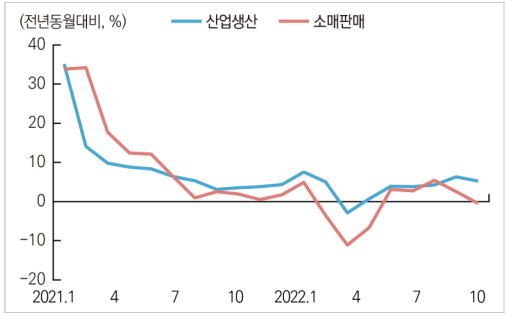
■ 10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 소비유형별로는 상품(0.5%)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외식업(-8.1%)에서 감소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8월)5.4 → (9월)2.5 → (10월)-0.5

■ 10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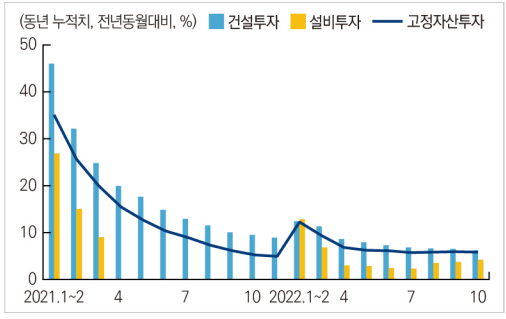
-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6.2%)와 설비투자(4.2%)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2.8월)5.8 → (9월)5.9 → (10월)5.8

[그림 5]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6]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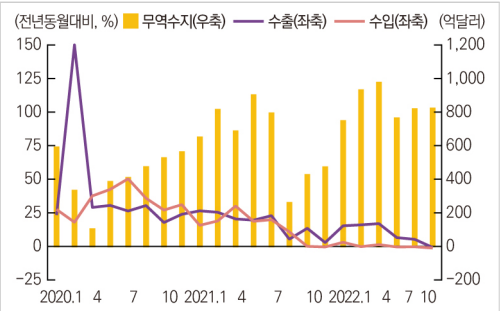
■ 10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851.5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0.3%, 0.7% 감소
- 무역수지(억달러): ('22.8월)792.2 → (9월)848.1 → (10월)851.5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8월)7.2 → (9월)5.9 → (10월)-0.3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8월)0.2 → (9월)0.3 → (10월)-0.7

■ **10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5%로 집계되었으며, 9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1,00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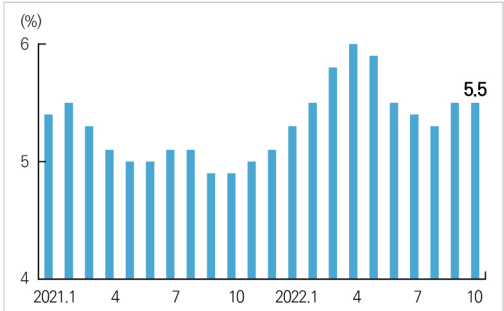
- 실업률(%): ('22.8월)5.3 → (9월)5.5 → (10월)5.5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2.7월)783 → (8월)898 → (9월)1,001

[그림 7]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8]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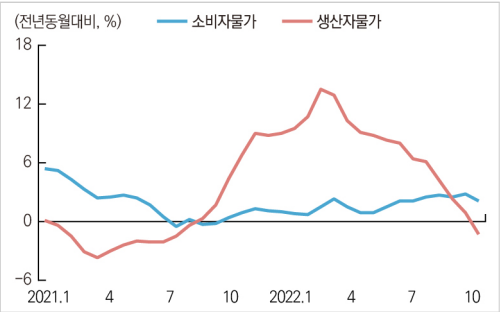
■ **10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식료품 물가(7.0%)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식료품 외 물가(1.1%)의 상승폭은 축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8월)2.5 → (9월)2.8 → (10월)2.1

■ **11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47.1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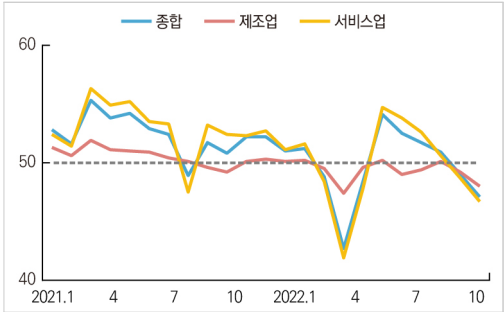
-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하회하면서 전월보다 1.9p 하락
- 11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8.0, 46.7을 기록
- 종합PMI: ('22.9월)50.9 → (10월)49.0 → (11월)47.1

[그림 9]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10]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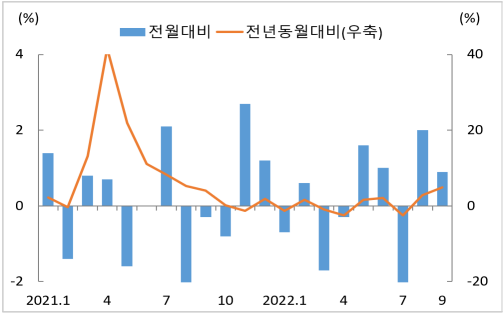
■ 9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9% 증가

- 비내구소비재(3.6%)와 자본재(1.5%)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에너지(-1.1%)와 내구재(-0.9%) 생산이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전월대비, %): ('22.7월)-2.3 → (8월)2.0 → (9월)0.9

■ 11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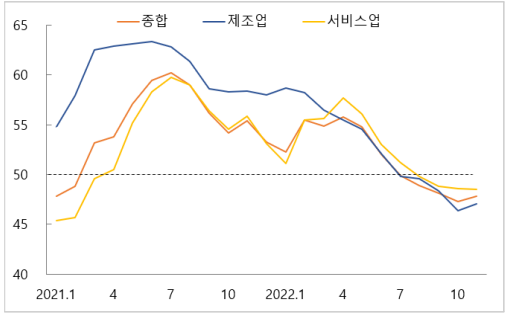
-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기준선 하회
- 서비스업 PMI는 경기 하강, 금리 인상 등 수요 둔화요인의 영향으로 하락 지속
- 지역별로는 독일의 종합PMI(45.1 → 46.3)는 수축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프랑스 종합PMI(50.2 → 48.7)도 기준선 하회
- 유로지역 종합PMI: ('22.9월)48.1 → (10월)47.3 → (11월)47.8
- 유로지역 제조업PMI: ('22.9월)48.4 → (10월)46.4 → (11월)47.1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 ('22.9월)48.8 → (10월)48.6 → (11월)48.5

[그림 11]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그림 12] 유로지역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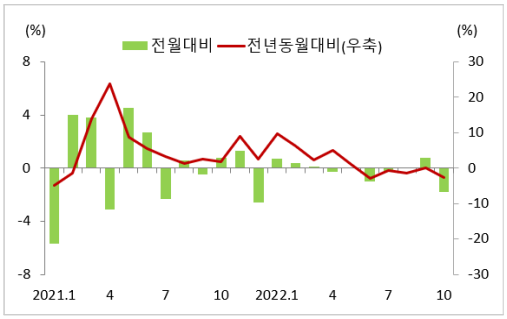
주: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
자료: Bloomberg

■ 10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8% 감소

- 소매판매는 식품, 음료 및 담배(-1.5%), 비식품(-2.1%) 판매가 줄어 감소
- 주요국 가운데 독일이 -6.6%로 하락폭이 컸으며, 프랑스(-2.7%)에서도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2.8월)0.0 → (9월)0.8 → (10월)-1.8

■ 11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9월 역대 최저치를 경신(-28.7)한 이후 반등하여 -23.9를 기록

[그림 13]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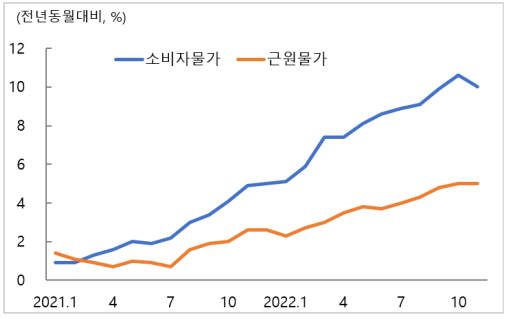
주: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Bloomberg

■ 9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10.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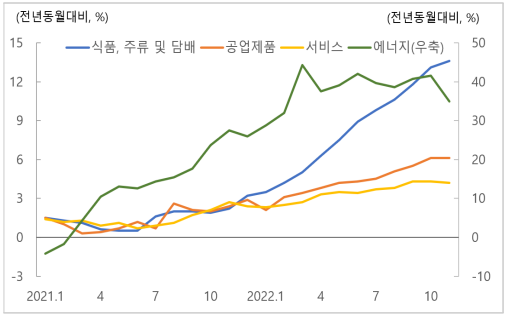
- 에너지(34.9%), 음식료품(13.6%) 등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파른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7월)9.9 → (8월)10.6 → (9월)10.0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2.7월)4.8 → (8월)5.0 → (9월)5.0

[그림 15]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6] 유로지역 품목별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 10월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6.6%를 기록

- 실업률은 2021년 7월(8.6%) 정점을 기록한 후 개선세 지속
- 청년실업률은 전월보다 0.4%p오른 13.6%를 기록

4. 일본

일본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생산이 감소하며 회복이 정체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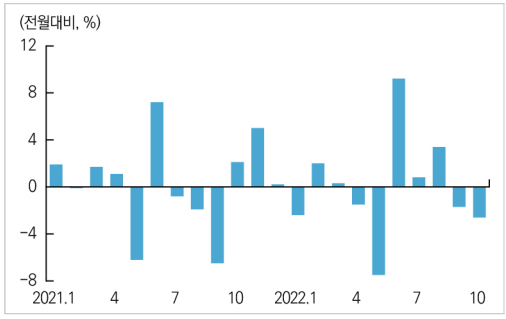
■ 10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6% 하락

- 광공업 생산은 해외수요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두 달 연속 하락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8월)3.4 → (9월)-1.7 → (10월)-2.6

■ 11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기준선을 밑돌아 48.9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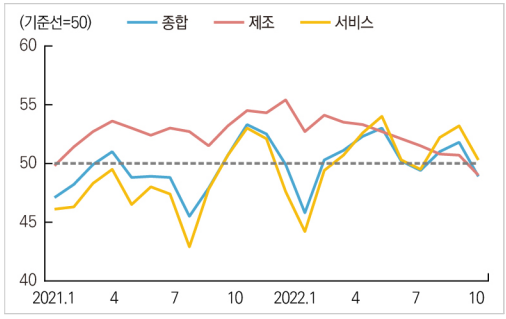
- 제조업PMI는 기준선을 하회하였고, 서비스업PMI는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전월대비 하락
- 종합PMI: ('22.8월)49.4 → (9월)51.0 → (10월)51.8 → (11월)48.9
- 제조업PMI: ('22.8월)51.5 → (9월)50.8 → (10월)50.7 → (11월)49.0
- 서비스PMI: ('22.8월)49.5 → (9월)52.2 → (10월)53.2 → (11월)50.3

[그림 17]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8]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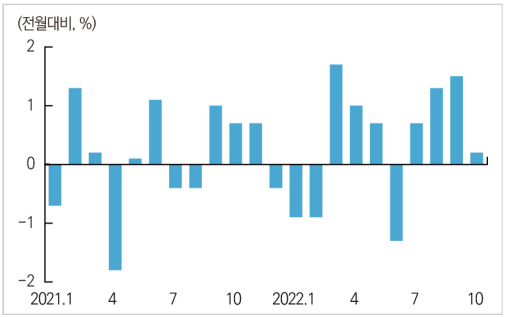
■ 10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0.2% 증가

- 소매판매는 코로나19 확대 여파가 완화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오름세는 둔화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8월)1.3 → (9월)1.5 → (10월)0.2

■ 10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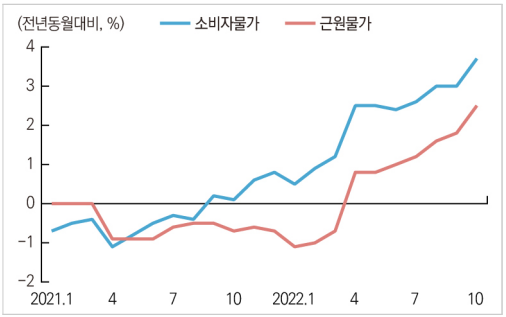
- 엔화 가치 하락과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과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 오름폭이 확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8월)3.0 → (9월)3.0 → (10월)3.7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2.8월)1.6 → (9월)1.8 → (10월)2.5

[그림 19]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0]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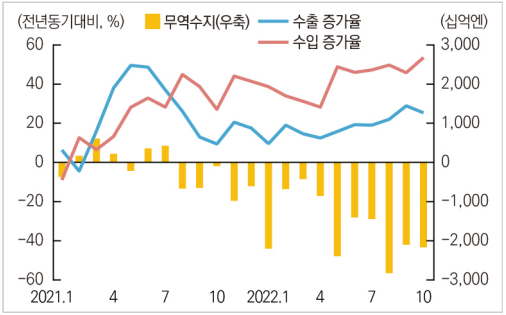
■ 10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2조 1,660억엔 적자를 기록

- 일본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십억엔): ('22.8월)-2,825 → (9월)-2,100 → (10월)-2,166
-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25.3%와 53.5%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8월)22.0 → (9월)28.9 → (10월)25.3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8월)49.8 → (9월)45.8 → (10월)53.5

■ 11월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38.1엔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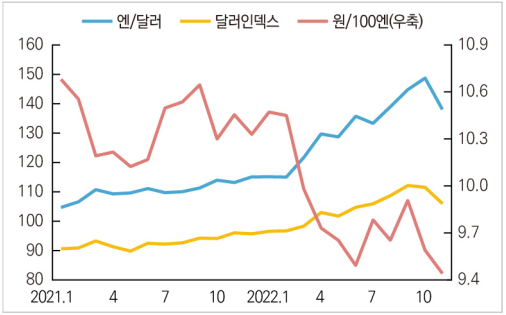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중국의 봉쇄 반대 시위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전월대비 하락
- 엔/달러 환율(월말): ('22.8월)139.0 → (9월)144.7 → (10월)148.7 → (11월)138.1

[그림 21]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2]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V

경기분석 기법을 이용한 최근 국내 경기상황 점검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02-6788-3775), **박선우** 경제분석관(02-6788-3733)

1.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최근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들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 **IMF와 OECD는 최신 전망에서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2.0% 및 1.8%로 발표 (각각 0.1%p 및 0.4%p 하향 조정)**
- **한국은행도 지난 11월 내년도 성장률을 1.7%로 전망(0.4%p 하향 조정)**
- **금리상승과 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신규 투자수요 위축 등을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

국내 주요 경제지표는 10월 들어 하강 움직임이 뚜렷

- **전산업 생산은 1.5%(전월대비) 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각각 3.6%, 0.8% 감소**
  - 제조업은 4개월, 서비스업은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도 확대
- **소매판매도 0.2%(전월대비)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
- **다만 투자는 소폭 증가세 유지**
  - 설비투자는 보합,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3.8% 증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6월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다양한 경기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근의 경기정점을 추정함으로써 경기국면의 하강 전환 가능성을 분석

■ **경기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가계, 기업, 정책당국 등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

■ **경기국면(확장과 수축)은 공식적으로 통계청 기준순환일(경기정점과 저점)에 의거하여 판단하나 각 전환점 설정에는 통상 3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 **이에 정책당국, 전망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경기국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노력**

■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경기분석기법들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적으로 최근의 경기전환점을 추정**

- 지표분석에서는 순환변동치[1]를 활용하여 경기순환 요인의 추이를 확인
- 모형분석에서는 연속신호추출법, 네프치(Nefci) 확률모형 등을 활용하여[2] 최근의 경기정점을 추정

1) 순환변동치는 분석대상 지표에서 경기순환과 관련이 적은 추세·계절·불규칙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경기적 움직임만을 보여주는 장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환변동치를 산출
(1단계) 개별 지표에 X-12-ARIMA 기법을 적용하여 추세순환변동요인(TC) 추출
(2단계) 1단계에서 구한 추세순환변동요인(TC)에 HP필터를 적용하여 추세(Trend)를 제거하고 순환요인(Cycle)만을 추출

2) 상세한 설명은 박정규·최영일,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국면 식별",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4.1월 참조

2. 경기분석 기법을 활용한 최근의 경기정점 추정

통계청은 2019.9월에 2017.9월을 잠정 경기정점으로 설정·공표한 바 있으며 이것이 가장 최근의 공식 경기전환점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20.5월을 경기저점으로 자체 추정하고 그 이후의 경기상황을 점검

■ **실질GDP, 경기동행지수, 그 외 주요 경기지표 순환변동치들이 2020.5월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된 점에 근거하여 추정[3)]**

■ **다만 이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자체 추정치로 통계청 기준순환일과 무관함**

가. 개별지표 순환변동치 추이

전산업 생산지수는 5월 이후 감소

■ **제조업은 3월 이후 러·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수출 부진 등 여파로 생산이 급락**

- 제조업 재고순환선(출하증가율-재고증가율)도 2021.9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의도하지 않은 재고의 증가[4)]와 그에 따른 생산 조정을 시사

■ **서비스업은 7월 이후 하락 전환**

- 도소매업과 운수 및 창고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둔화

소매판매지수도 3월 이후 기준선(100)을 하회[5)]

■ **고물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주로 기인**

---

3) 연속신호추출법에서는 2020.1월로, 네프치 확률모형에서는 2019.7월로 각각 추정
4) 경기 수축기에는 예상치 못한 수요부진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재고의 증가'가 발생하기 쉬우나, 확장기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도한 재고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
5) 순환변동치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나타낸 개별지표의 현재 위치로 그 값이 기준선(100)보다 크면 동 지표는 추세선보다 위쪽에, 작으면 추세선보다 아래쪽에, 같으면 정확히 추세선 상에 위치

설비투자지수와 건설기성액은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으나 호조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설비투자 증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루던 투자를 집행한 데 주로 기인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0월 40.5%(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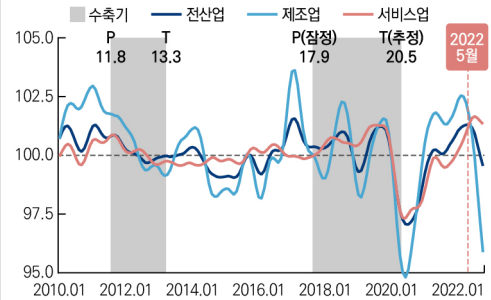
수출(실질)은 9월 이후 급락하고 있으나, 수입(실질)은 3월 이후 상승세 지속

- 중국 경기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세계 교역량 축소 등 교역여건 악화의 영향
-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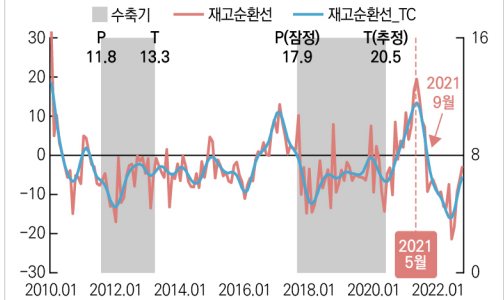
취업자 수는 고용 호조를 반영하여 기준선을 상회

- 대면활동 재개로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고용환경이 개선
- 다만 취업자수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어 고용이 생산, 소비, 수출 등 경기둔화에 점차 영향을 받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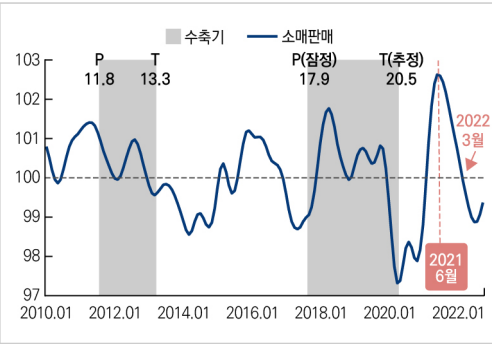
[그림 1] 생산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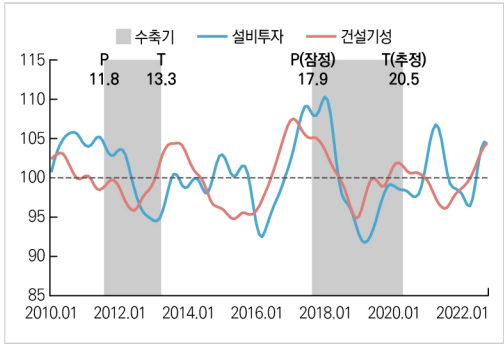
[그림 2] 제조업 재고순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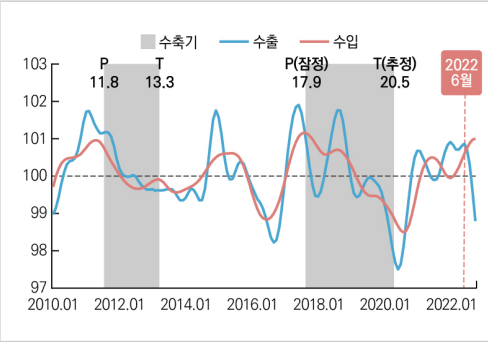
[그림 3] 소매판매액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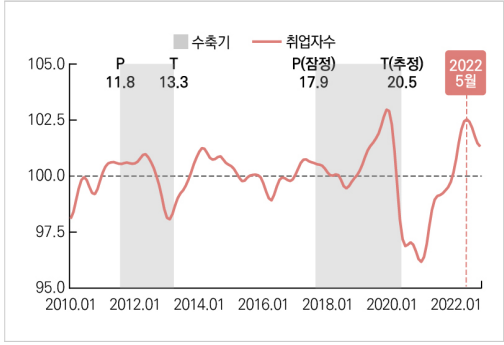
[그림 4] 설비투자지수 및 건설기성 순환변동치



[그림 5] 수출입(실질) 순환변동치



[그림 6] 취업자수 순환변동치



주: 1) 음영부분은 기준순환일 상 경기수축기간
2) 기준순환일 중 2017.9월은 잠정 정점(통계청), 2020.5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저점[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주요 경기지표의 순환변동치가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상승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2020년 5월을 경기 저점으로 추정하였음

나. 경기분석모형을 이용한 최근의 경기정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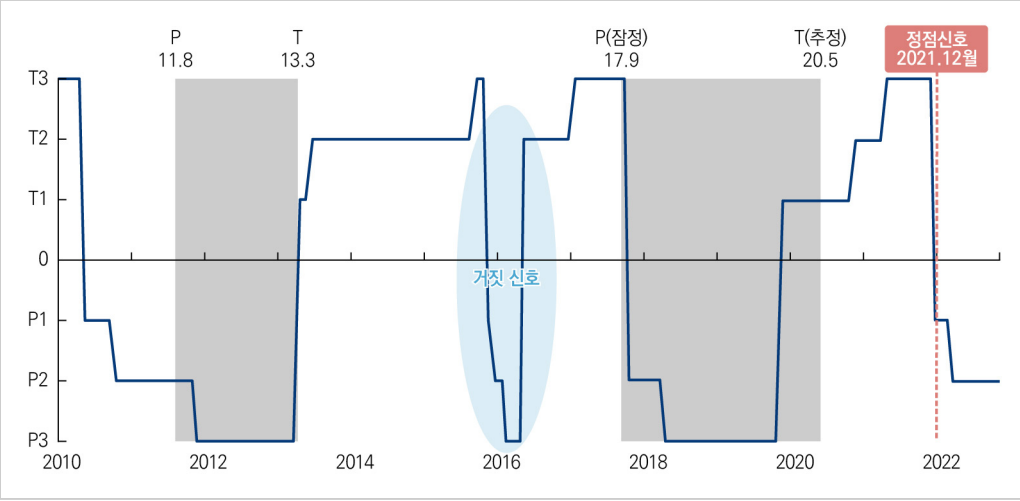
연속신호추출법과 네프치 확률모형은 경기전환점의 객관적 식별 기준을 제시하는 장점[7)]

- 특히 네프치 확률모형은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을 객관적인 확률값으로 제시
- 경기전환점은 경기전환 신호가 나타난 시점에 동 신호의 평균 선행시차를 더하여 추정

연속신호추출법에 따르면 추정 경기정점은 2022.7월

- 2021.12월 경기정점 신호(T3→P1)가 발생하였으며 동 신호의 평균 선행시차는 7개월

[그림 7] 연속신호추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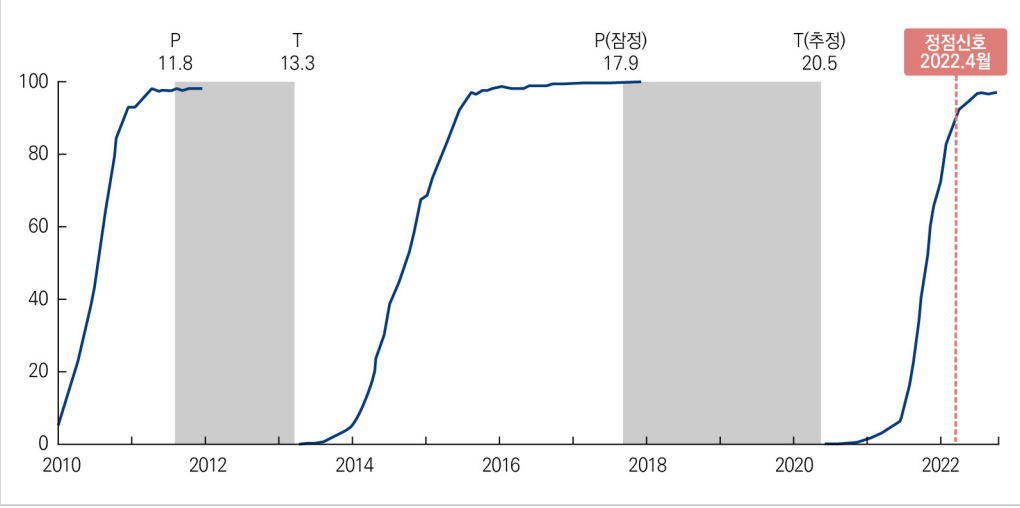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아울러 부분적 극점(local extreme)과 실제 경기전환점의 구분이 어려운 개별지표 분석법의 단점도 보완

네프치(Nefci) 확률모형에 의한 추정 경기정점은 2022.9월

■ 2022.4월 경기정점 신호(임계치 90% 상회)가 나타났으며 동 신호의 평균 선행시차는 5개월

[그림 8] 네프치 확률모형(정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2022.3/4분기 중 경기정점에 다다랐을 가능성

■ 다만 모형에 의한 정점 신호와 실제 정점 간에는 시차가 존재하며 거짓 신호(false signal)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

3. 종합 평가

경기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최근 국내 경기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우리 경제는 2022.3/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국면이 하강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생산이 둔화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5월 이후 감소
- 소비도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3월 이후 약화
-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급락
- 고용은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
- 2020.5월 저점(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이후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정점은 2022.7월(연속신호) 또는 9월로 추정
  - 다만 모형분석 결과에는 추정오차 및 거짓 신호(false signal)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

내년도 국내 경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고물가, 소비 둔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분쟁 지속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요인이 심화되면서 세계경기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한·미 금리차,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최근의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음
-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의 체감소득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보상소비(pent-up) 효과가 소멸되고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
-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채권시장) 불안은 한계기업의 부실위험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기반을 약화시킬 우려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2년 12월호 | 통권 제34호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 국회예산정책처, 2022